

연구보고서 20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유삼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인구 고령화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생산력이 지배적인 가치규범으로 자리잡은 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이 저하된 노인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소외의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관계의 변화와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가졌던 위상마저 붕괴되는 현상과 맞물리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상실된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통합을 기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향후 노인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참여 양상을 유형화시키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양적 분석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이 노인의 사회참여를 일자리(취업), 자원봉사, 친목모임, 종교, 문화, 교육 등의 영역으로 개별화시켰던 점, 그리고 행위자로서 노인중심적인 관점을 결여했던 것과 달리 보다 통합적이고 노인중심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접근하기 위한 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도를 통해 향후 보다 노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적 함의 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모호하고 논란이 많은 사회참여의 개념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규정하고 노년기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정리했다. 둘째, 다양한 사회참여 형태들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사회참여 유형을 파악하였다. 셋째, 각 사회참여 유형 및 비 사회참여 집단을 결정짓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행

위자로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어떻게 사회참여 활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관련 인프라의 현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해 많은 조언을 주신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의 한경혜 교수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박영란 교수님,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의 한정란 교수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석재은 교수님과 검독을 해 주신 본원의 강혜규 연구위원, 김형용 부연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심층면접 진행에 도움을 준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사회정책학 박사과정의 김수영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1
요 약	13
제1장 서 론	25
제2장 이론적 검토	30
제1절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대두와 함의	30
제2절 사회참여의 개념정의	32
제3절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	39
제4절 이론적 쟁점들	45
제3장 연구방법 및 분석틀	50
제1절 혼합방법론	50
제2절 양적분석	52
제3절 질적 분석: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63
제4장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및 실태	68
제1절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68
제2절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103
제3절 노인의 사회참여 영향 요인의 분석	108
제4절 소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선택 양상	1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48
제1절 분석 결과의 함의	148
제2절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현황 및 진단	149
제3절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65
참고문헌	169
부 록	176

표 목 차

〈표 2-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분류	38
〈표 3-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조작적 정의	61
〈표 3- 2〉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65
〈표 4- 1〉 지역별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용돈	69
〈표 4- 2〉 지역별 노인의 직업활동 유무	69
〈표 4- 3〉 전국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70
〈표 4- 4〉 지역별 노인의 현재 종사직종	71
〈표 4- 5〉 지역별 노인의 근무형태	72
〈표 4- 6〉 지역별 노인의 현취업 이유	72
〈표 4- 7〉 지역별 노인의 취업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73
〈표 4- 8〉 지역별 노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73
〈표 4- 9〉 지역별 향후 계속 취업 희망여부 및 이직여부	74
〈표 4-10〉 지역별 노인의 미취업 이유	75
〈표 4-11〉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및 이유	75
〈표 4-12〉 지역별 노인의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76
〈표 4-13〉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원하는 일의 형태	77
〈표 4-14〉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일자리 우선순위(1순위)	78
〈표 4-15〉 지역별 노인의 취업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78
〈표 4-16〉 지역별 노인의 종교단체 가입여부	79
〈표 4-17〉 지역별 노인의 종교단체 월 참여빈도	80
〈표 4-18〉 지역별 노인의 향후 종교단체 가입 희망여부	80
〈표 4-19〉 지역별 노인의 문화활동단체 가입여부	81

〈표 4-20〉	지역별 노인의 문화활동단체 월 참여빈도	81
〈표 4-21〉	지역별 노인의 향후 문화활동단체 가입 희망여부	82
〈표 4-22〉	지역별 노인의 운동단체 가입여부	82
〈표 4-23〉	지역별 노인의 운동단체 월 참여빈도	83
〈표 4-24〉	지역별 노인의 향후 운동단체 활동 가입 희망여부	83
〈표 4-25〉	지역별 노인의 사교단체 가입여부	84
〈표 4-26〉	지역별 노인의 사교단체 월 참여빈도	84
〈표 4-27〉	지역별 노인의 향후 사교단체 가입 희망여부	84
〈표 4-28〉	지역별 노인의 정치 및 직능단체 가입여부	85
〈표 4-29〉	지역별 노인의 정치 및 직능단체 월 참여빈도	85
〈표 4-30〉	지역별 노인의 향후 정치 및 직능단체 가입 희망여부	86
〈표 4-31〉	지역별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여부	86
〈표 4-32〉	지역별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87
〈표 4-33〉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참여의향 및 희망 영역	88
〈표 4-34〉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	88
〈표 4-35〉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89
〈표 4-36〉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기본활동비 지급 필요성 여부	89
〈표 4-37〉	지역별 노인의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90
〈표 4-38〉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향후 참여영역	91
〈표 4-39〉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91
〈표 4-40〉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92
〈표 4-41〉	노인의 일반특성에 따른 경로당 이용률 및 이용빈도	94
〈표 4-42〉	노인의 지역별 및 성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96
〈표 4-43〉	노인의 교육수준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96
〈표 4-44〉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도	98
〈표 4-45〉	노인의 지역별·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는 이유	99

〈표 4-46〉 노인의 교육수준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는 이유	100
〈표 4-47〉 노인의 지역별·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지 않는 이유	101
〈표 4-48〉 노인의 교육수준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지 않는 이유	102
〈표 4-49〉 K 평균 군집분석 결과	104
〈표 4-50〉 사회참여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	106
〈표 4-51〉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자원봉사중심형 기준)	109
〈표 4-52〉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종교중심형 기준)	118
〈표 4-53〉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직업중심형 기준)	125
〈표 4-54〉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경로당중심형 기준) ·	130
〈표 4-55〉 사회참여 유형과 비참여 유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비참여형 기준)	137
〈표 4-56〉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참여 선택 양상	144
〈표 4-57〉 사회참여 유형별 핵심적 결정요인 비교	146
〈표 5- 1〉 노인 사회참여 지원 기관 구분	153
〈표 5- 2〉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154
〈표 5- 3〉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156
〈표 5- 4〉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157
〈표 5- 5〉 경로당과 노인교실 1개 지자체 평균 설치 현황	159

그림 목 차

[그림 4-1] 노인의 소극적 사회참여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도식화 ..	138
--	-----

Abstract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Older Persons: Policy Implication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blems an ageing society faces is the role deprivation and social isolation of older persons, which takes special significance in a post-industrial era where productivity matters more than ever before. In this respect, restoring the roles and social status of older persons by promoting their social participation is considered crucial to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Previous research into the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was limited in two respects. First, overly focusing on individual types of social participation, previous studies failed to hold an integrative viewpoint. Second, many of the past studies denied an actor-oriented perspective.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in Korea from an integrative and actor-oriented perspective. To do so, this study classified variou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into representative activity types and sought to find out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determine each type. Also,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way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quantitative findings.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reviews various theoretical views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The second part consists of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which is about finding out the "representative types" of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Korean older persons. The third part is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determine each type of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Fourth and last, future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a critical examination of existing policies and programs.

요 약

제1장 서론

- 인구 고령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노인의 상실된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통합을 기하는 것임.
 - 이는 곧 사회 속에서 고립·단절되어 있는 노인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일임.
 - 노인의 사회참여는 비단 사회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지금까지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동향 및 정책방향은 포괄적이고 노인중심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했으며 정책 대안의 제시도 당위적이거나 선언적인 차원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이고 노인중심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의 세 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 및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다 현실화·구체화시키고자 함.

제2장 이론적 검토

□ 사회참여의 개념

- 개념적 정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사회참여는 개인단위 또는 집단단위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욕구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기존의 관련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됨.
 - 첫째, 사회참여의 다양한 개별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많은 관심이 공급자 중심적인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 논의의 흐름이 노인의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만족도 제고라는 측면보다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을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두어지고 있음.
 - 셋째, 사회참여 실태에 대한 전국조사결과나 소규모 조사결과에 기초한 경험적 기술이나, 개별 사회참여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양적 접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능

- 노후에 경험하는 고통중 하나로 언급되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무위를 완화해줄 수 있음.
-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소득욕구의 충족, 취미생활을 포함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욕구의 충족,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욕구의 충족, 스포츠 활동을 통한 스포츠욕구의 충족,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심리욕구의 충족 등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임.

-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연계망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음.

제3장 연구방법 및 분석틀

□ 혼합방법론

- 양적분석 및 질적분석이 줄 수 있는 정보의 포괄이 가능함.

□ 양적분석

- 선행연구 검토

- 노인의 사회참여는 성, 연령, 거주지 등 인구학적 변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직업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함.
- 노인의 건강상태는 노후생활의 독립적인 활동여부를, 결혼상태 및 세대관계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구소득, 용돈, 노후준비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인이 참여하는 사회참여 유형과 그 방향성 역시 다를 수 있음. 노인의 최장기 직업은 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을 보여줌.

- 분석자료 및 조작적 정의

- 양적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

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노인개인조사 응답자 중 본인응답자 3,029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직업,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교육, 자원봉사, 경로당 등 9가지 영역을 노인의 사회참여 분야로 선정함.
- 성, 연령, 교육 등 인구학적 변수와 건강상태, 가구소득, 노후준비 등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주요 변수들을 분석목적에 맞게 변환함.

— 분석방법

- 기술통계 분석을 위주로 사회참여 각 분야별 노인의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각 분야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
- 각 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함. 첫째, 사회참여 노인을 비(非)참여 노인과 구분하고, 둘째, 사회참여 노인을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특징별로 유형을 분류함.
-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비참여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사회참여·비참여의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

□ 질적분석

— 심층면접 중심의 질적 분석

- 2차에 걸친 심층면접 진행: 1차 면접은 양적분석과 동시에 진행, 양적분석 결과와 1차 면접 결과에 대한 대조분석 작업 후 양적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면접 내용을 예각화시켜 2차 면접을 진행하였음.
- 연구의 충분성을 위해 면접 인원은 사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총 16명(1명은 2회에 걸친 인터뷰)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도시지역 노인 5인, 도농복합지역 노인 5인, 농어촌지역 노인 6인으로 구성. 또한 16명 가운데 사회참여를 하는 노인이 9인, 별다른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이 7인임.

제4장 노인 사회참여 현황 및 실태

□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군집분석 결과

- ①직업, ②종교, ③문화, ④운동, ⑤사교, ⑥정치, ⑦교육, ⑧자원봉사, ⑨경로당 등 모두 9가지 형태의 사회참여를 기준으로 분석 실시.
- 이들 9가지 사회참여 형태에 대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음.
- 각 군집이 가진 특성에 근거해 각 군집을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으로 명명함.
- 여기에 어떠한 사회참여도 하지 않는 “비참여형”을 덧붙여 모두 5가지 유형을 분석 대상에 포함함.

□ 자원봉사중심형

- 양적분석 결과
 - 이전 종사 직종이 사무서비스직인 경우, 높은 교육수준, 경제적 노후준비가 있었던 경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질적분석 결과
 -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귀착점이 되고 있었음. 처음에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아무런 상과 계획이 없었더라도 교회, 친구 등의 친목모임, 직장 등 노인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 한 번의 경험은 또 다른 자원

봉사 활동의 기회로 연결되고 있음.

-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상이한 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극적 자원봉사와 적극적 자원봉사의 두 가지로 구분됨.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이한 상은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 유형과 이전 종사 직종과 같은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적극적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자금(돈)을 지적함. 자금이란 사회활동에 필요한 소소한 비용(교통비, 식사비)을 넘어서 기부 형식의 보다 적극적인 자금 지출로,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비롯한 적극적 사회참여가 상당부분 사회적 지위 확보의 욕구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종교중심형

－ 양적분석 결과

-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종교중심형 사회참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농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노인개인이 보유한 자원으로서 용돈이 적은 경우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됨.

－ 질적분석 결과

- 종교가 노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다양함. 종교에 접근하게 된 경로도 다양하며 현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에도 차이가 있음.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종교를 통해 노후에 단절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있음.
- 동시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기존 노인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낙인(경로당은 '수준이 낮다')에 비해 종교는 초계층적이며 세대통합적인 특징을 가짐.

□ 직업중심형

- 양적분석 결과

- 연령과 배우자 유무가 타 유형과 직업중심형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인임.

- 질적분석 결과

- 직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의 경우 직업활동이 주는 경제적 혜택 이외에 직업활동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떳떳함', '독립심' 이었음. 즉, 노인으로서 떳떳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음.
- 반면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됨. 먼저, 직업활동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로 주로 고위전문직 종사자일수록, 더 이상의 일은 '욕심'이며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두 번째 유형은 직업활동에 대한 좌절과 포기, 냉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벽들(사기, 실망 등)을 경험한 경우임. 노인이 일하는 모습에 대한 주변 사람들(특히 일하는 동료들)의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위축. 자신감의 저하를 내면화하고 있음.
- 한편, 노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에의 참여를 통해 좌절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있음.

□ 경로당중심형

- 양적분석 결과

-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 생산직 종사자,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 개인의 적은 용돈 등의 변수가 타 유형에 비해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임.

– 질적분석의 결과

- 경로당에서 주로 소일을 하는 노인은 경로당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돈을 안들이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임을 주장함.
- 또한 농촌지역과 같이 시설기반 미비지역의 경우 다른 시설의 총체적 부재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경로당 활동을 하게 됨.
- 반면, 경로당을 회피하는 경우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경로당 활동의 내용적 저하를 지적하고 있음.
-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경로당에 대한 스티그마(stigma)가 존재함. 즉, 경로당에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고, 따라서 아무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더라도 경로당에 가지 않겠다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함.

□ 비 사회참여형

– 양적분석 결과

- 높은 연령, 경제적 노후준비가 없었던 경우, 나쁜 건강상태, 낮은 가구 소득 등이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집단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 질적분석 결과:

- 공통요인은 '낮은 수준의 사회제도'와 '사회참여에 대한 역할모형의 부재'라는 공통 요인으로 수렴됨. 이는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의미와 파급효과가 상이하며 여건 등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첫째, 낮은 수준의 사회적 제도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수준, 즉 이미지의 저하 초래. 대표적 노인 사회참여 인프라인 노인복지관은 일반적인 '복지시설'이라는 낙인. 경로당은 프로그램 부

재와 내용적 저하로 인해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음. 이로 인해 사회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저하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상류층 노인의 경우 강하게 나타남.

- 둘째, 사회참여에 대한 역할모델(role-model)의 부재, 즉 상의 부재로 연결.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의 대다수는 젊은 시절 생활의 고단함으로 인해 노후 활동의 상을 그려본 적이 없음.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은 사회참여를 근로활동과 연결시키는 경향을 보임. 이들 활동은 모두 “젊었을 때 해야 하는”, 즉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수동적인 인식을 나타냄. 가족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류층 노인의 경우 역할 상실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사회참여의 상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셋째,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사회참여의 의지는 있으나 자원의 부족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사회제도의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로 구분됨.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분석결과의 함의

- 개별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상이함.
 - 이같은 이질성은 생애 경로에 걸쳐 누적된 경험 및 자원,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노인들의 사회참여 네트워크는 상호연결적인 속성이 있음.
 - 한 가지 종류의 사회참여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참여로 연결되며 궁

극적으로 보다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보다 '사회적'인 성격의 사회참여로 연결됨.

- 우리나라 노인들 중 다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상이 부재함.
 - 적극적인 홍보 및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현황

- 노인 사회참여 관련 법·정책 검토
- 노인 사회참여 공공시설 인프라 현황
 -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 노인취업지원기관 및 노인교육기관: 노인 취업을 지원하는 CSC (Community Senior Center)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동부의 고령자워크넷, 고령자인재은행,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노인여가복지기관 : 경로당, 노인교육기관인 노인교실
 - 기타 지역사회 사회참여 증진 시설: 자원봉사센터, 여가문화 및 사회교육 기능기관으로서, 여성회관, 시민회관, 초등학교, 동사무소 등
 - 그 외의 공공영역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센터와 초·중·고등학교 등 임.

□ 민간 인프라 현황

-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민간부분의 인프라는 종교기관과 민간 문화센터, 대학 등에서의 활동이 대표적임.
-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영역의 인프라는 대부분 노인 교육과 여가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태임.

- 그 외의 노인의 사회참여 영역으로는 정치 또는 정책활동의 참여, NGO 활동 등이 있지만,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형성된 대표적인 단체로서 노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곳은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가 있음.
- 노인의 사회참여 인프라 진단
 - 법과 제도상에 노인 사회참여를 위한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노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문제
 -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부족
 -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노인 사회참여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 민간 시설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
-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시설인프라 개선 방안
 - 사회참여 공공시설 인프라의 확충: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그 외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의 자원봉사, 노인고용, 노인 여가문화 등의 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노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을 필요로 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도입,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통한 민간 시설 인프라의 확충 및 개발 등이 있음.

- 노인 사회참여를 위해 특화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필요.
 - 노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상담에서부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 연결, 자원 제공 등을 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예, '노인 사회활동 정보센터')

□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사회참여 관련 노인 욕구에 대한 체계적 조사
- 현존 사회 인프라 개선
 - 기존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제거
 - 시설 인프라 이외에 교통 시스템 등 관련 사회 인프라 개선
- 노인 재교육 시스템 개발
 -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변화한 사회시스템에 보다 적응할 수 있도록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적극적인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

□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방안

- 노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사회구성원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령통합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제1장 서론

선진국에서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을 당시, 우리는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해 후발 산업국으로서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고령화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일에 불과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령화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는데, 이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포착되었다. 첫째, 복지 후발주자로서 갑자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도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둘째, 전통적인 완충기제로 작용하던 가족관계의 변화와 전통윤리의 상실이라는 측면이다. 이에,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따라서 한때 나라의 산업화에 이바지하느라 스스로의 노후를 전혀 돌보지 못한 집단, 막연하게 가족에 기대하고 있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 그 기대마저 무너지게 된 집단에 대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은 기초노령연금 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노인인구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존에 대한 기초적인 보장은 확보되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생존 및 케어의 문제로 인해 간과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곧 노인의 상실된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통합을 기하는 문제이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노인집단의 약 1/3은(32.5%) 노후의 시간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다(정경희 외, 2005). 이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은퇴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역할

이 박탈된다는 현실이, 그 보다 더 깊숙한 곳에는 생산의 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즉, 생산력의 문제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규범으로 자리잡은 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이 저하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무기력, 쓸모없음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와 배제로 연결된다. 실제 노인을 제외한 기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노쇠하다', '독단적이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는 사실은 생산성이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오늘날의 사회구조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연결됨을 실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배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단위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지위하락 및 헤게모니 상실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 고령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한 '무기력한' 존재인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과 이에 대처할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것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불과 20여년 앞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관한 정책대안은 빈곤하고 취약계층에 속한 소수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노인 인구를 사회 시스템 속으로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향은 곧 사회 속에서 고립·단절되어 있는 노인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 된다.

이렇듯 노인의 사회참여는 비단 사회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 삶에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의 제 유형, 예컨대 자원봉사, 일자리, 종교, 여가 등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정

(positive)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노인 사회참여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사회참여율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단체' 중심의 조직적인 사회참여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경로당 활동 등에 제한된 사회참여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단체 활동의 경우에도, 사회단체 종류별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7.9%가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사교단체에는 35.5%, 운동단체 3.9%, 정치단체 2.1%, 문화활동단체 0.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단체 활동의 대부분은 종교단체와 사교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지금까지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동향 및 정책방향은 포괄적이고 노인중심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했으며 정책 대안의 제시도 당위적이거나 선언적인 차원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노인의 사회참여는 일자리(취업), 자원봉사, 친목모임, 종교,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참여'라는 큰 틀 속에서 각각의 사회참여 유형들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경향이 노인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공감에 근거하기보다 주로 사회참여의 각 유형에 대한 당위성(예컨대, 노인 취업의 당위성, 노인 자원봉사의 당위성 등)을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은 지나치게 노인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인의 사회적 기여·공헌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노인의 욕구와 만족이라는 수요자 중심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노인'은 같은 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상이한 인생경험과, 상이한 자원과, 상이한 가치관 등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또한 노후가 되었을 때 처하게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생사가 줄 수 있는 경험과 자원의 모든 편차를 다 포괄할 만큼 이질적인 집단인 노인은 그만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욕구들이 제대로 포착되어야 실제로 노인의 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의식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정책대안의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이고 노인중심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의 제 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 및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다 현실화·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 되었다.

제2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이론적 작업을 진행한다. 모호하고 논란이 많은 '사회참여'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노년기 사회참여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현재적 맥락과 이론적 쟁점을 연결시킴으로써 그간의 다양한 이론적 작업이 본 연구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참여와 관련된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미시적인 욕구의 차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방법론도 양적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 혹은 미시적 차원의 질적 분석 중 어느 한 가지 위주로 진행하는 것 보다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보다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혼합방법론'의 관점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혼합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양적 및 질적 분석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다양한 사회 참여 형태들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사회참여 유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각 사회참여 유형들을 결정짓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어떻게 사회참여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사회참여도 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대책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인프라의 현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노인의 사회참여 시설 인프라 현황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개선책 마련의 토대를 제공한다.

제6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분석 결과가 주는 전반적인 함의를 제시하고 향후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대두와 함의

노년기의 사회참여는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권중돈, 2004).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의 사회참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의 제특성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및 정보·지식 습득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등 질적인 변화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지금 우리사회의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며,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시장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가 될 것이고, 투표권을 가진 다수집단으로서 정부와 정당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조남훈 외, 2006).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과 같은 생존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어온 기초욕구 충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삶의 질 향상에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책의 지평과 수준의 향상의 중심에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Rowe와 Kahn은 성공적 노화 개념에 의하면,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은 질병과 장애를 피하고(low risk of disease and disease-related disability),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

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성공적 노화의 3가지 요소이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는 개인수준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는 건강증진, 생활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편, 노인의 사회참여는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을 가져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이근홍, 2001).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의 이미지 제고라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참여의 활성화가 가져올 사회적·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공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증대하는 사회적 관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활동의 다양한 요소 중 한 사회가 어떤 활동을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노동이 여가보다, 집단활동이 개인활동보다, 스포츠 활동이 명상이나 관조보다 가치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하고 역동성으로 가득찬 활동을 존중하는 것은 노동지향의 사회 속에서 은퇴를 정당화하는 것과 함께 서구 중심의 busy ethic에 기초해있으며, 이는 활동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김훈, 1998; 정경희 외, 2006). 생산적 노화의 관점에서는 TV시청, 음악회 참가, 여행 같은 개별적 활동보다는 자원봉사활동과 노인조직참여와 같은 활동이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사회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이 사회활

동 중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비하여 여가활동이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조는 자칫 노인 개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Kaplan(1960)은 여가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일과 반대되는 것, 즐거움으로 기대되고, 즐거운 것으로 회상될 수 있는 것,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의무성이 최소한인 것, 심리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 중요성과 심각성의 정도가 약한 것, 가끔 놀이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마련과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최성재, 1992 재인용).

이하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참여의 개념을 정의해 보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2절 사회참여의 개념정의

1. 개념적 정의

흔히 쓰이고 있는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개념에는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다. 협의로는 한 사회집단이 갖고 있는 요구를 표현하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한편, 협의의 정의에 더불어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활동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도 있다(윤종주, 1994). 협의의 정의가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광의의 개념은 집단

의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한편, 사회참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활동(social activity)과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이 있다. 사회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와 사고로 정의 되는 개념이다(장인협·최성재, 1987). 그런데 사회적 관계는 한 개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집단 속에서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맺어지게 되므로, 사회참여 활동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돌봄 활동, 가사활동 등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한편, 사회운동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사회변동을 달성 또는 저해하려는 집합적 노력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유사 개념들은 포괄 범위와 논의의 초점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괄성이라는 점에서 비교해볼 때, 사회운동이나 사회참여에 비하여 사회활동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한 사회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사회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적던 많은 사회활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참여에 비하여 사회운동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사회참여나 사회활동에 비하여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포괄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사회활동, 사회참여, 사회운동의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일정 정도의 지속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은 사회참여나 사회활동과 차별화된다.

더불어 사회참여 자체도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만 포함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도 포함하는가에 따라서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가 구분되고 있다. 즉, 사회참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단위가 집단인가 개인인가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협의의 개

념에 의할 경우 행위의 대상은 공공기관이지만, 광의의 정의에 의한다면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현 사회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활동인가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사회운동은 사회참여나 사회활동과 구분된다.

이러한 유사 개념과의 비교에 기초해볼 때,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사회활동은 개인단위 또는 집단단위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욕구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사회활동은 사회관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들과 같은 일차적인 비공식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활동보다는 그 포괄성이 낮다. 또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운동과 구분된다.

이러한 사회참여의 정의는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 중심의 윤리(work ethics)와 유급노동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엮물려 본 연구가 자칫 서구중심적이며 남성중심적일 가능성을 갖게 한다. 일중심의 윤리는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삶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서구 중심적인 개념으로, 그렇지 않은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Holstein & Minkler, 2003). 이러한 생산적 활동의 강조는 노인 개인의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인 자신이 진정 생산적 활동을 원하는가 보다는 사회에서 생산적 활동을 바람직하고 가치있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급노동에 대한 강조는 비시장적 관계, 주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행해온 돌봄 노동(Hooyman & Gonyea, 1995; Ungerson, 1995)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돌봄노동 중심적 또는 타인 중심적 삶을 영위해온 여성노인들의 삶(정경희 외, 2006)에서

차지하는 사회참여활동의 비중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적을 수 밖에 없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의 노년기의 사회참여의 구체적인 현상이 서구 중심적, 남성중심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회참여는 노인 개개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일부이며, 사회활동 중 사회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중 유급노동만을 평가절상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는 규범적 지향을 배제하고자 한다.

2. 조작적 정의

사회참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회가 노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점과 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 따라서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정의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제시되고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가 노인의 사회참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의해보는 것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는 일반교양강조, 한글·영어·일어·한자·숫자교육, 역사탐방, 건강교육, 정보화 교실, 건강증진, 가요교실, 전통문화교실, 체육, 무용,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 미

술활동, 서예, 장기·바둑, 다도·꽃꽂이·채소가꾸기, 종교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의 취미여가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오영희 외, 2002). 또한 경로당에서는 화투·바둑·장기, 서예, 장구, 노래교실, 춤·스포츠 댄스, 게이트볼, 건강체조, 한글·산수·한자교실, 컴퓨터 교실, 교양강좌, 자원봉사, 공동작업장, 신문토론, 야외나들이, 재취업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오영희 외, 2004). 한편 노인교실에서는 서예, 건전가요·시조, 건강체조, 무용·에어로빅·요가, 종이접기, 단체야유회·견학·사회봉사활동, 영어·한글·한문, 풍물·장구·탈춤, 종교활동, 수지침, 컴퓨터, 그림그리기·공예, 뜨개질, 일반교양강좌 등이 실시되고 있다(정경희 외, 1999).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경제활동과 관련된 교육, 자원봉사활동, 다양한 학습활동과 여가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번째는 그 사회의 정책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의일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논의(강신욱 외, 2005)를 살펴보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배제, 정치적 배제, 문화적 배제를 포함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소비활동, 저축활동, 생산활동, 정치적 활동,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배제(Burchardt et al., 1999)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참여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생산활동,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즉, 가족, 친구 등 의미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특정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인 사회적 활동과, 즉각적인 또는 광범한 사회·물리적 환경의 보호개선을 위한 집합적 노력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노인의 욕구의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의 욕구와 관련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슬로

의 욕구론에 기초하여 볼 때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집단의식을 주요목표로 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사회참여활동을 구성한다 하겠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검토에 기초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자료상의 가용한 활동항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의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직업활동, 종교단체활동, 문화활동단체활동, 운동단체활동, 사교단체활동, 정치단체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이용의 9개 활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에 의한 3종류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이용은 독립적인 사회활동 항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노인휴양소는 개소수가 3개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적다고 판단되며,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실제 매우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활동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경로당은 구체적인 사회참여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경로당 이용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노인이 언제나 모일 수 있는 '사랑방'역할을 하는 공간 즉, 이차적인 비공식적 관계의 유지를 통한 유대감 유지 자체가 근간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갖는다는 점에서 개별 활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둘째,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참여활동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참여와 관련된 프로그램 중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한 항목으로 그 포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조사자료에도 각각

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가 조사·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 활동단체를 통한 활동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볼 때 직업활동 외에도 정치적 활동,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이 사회참여활동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치적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단체 가입여부를 통하여 노인의 정치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욕구론의 측면에서 볼 때 자아실현의 욕구, 자존의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평생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각종 단체활동 등이 사회참여 활동의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사회참여활동의 참여방법과 각 항목의 일차적인 목표라는 두가지 축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분류

구 분		참여방법	
		개인단위 활동	집단단위 활동
일차적인 목표	사회적 변화추구 욕구의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단체활동
	개인의 개별적 욕구의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활동 • 자원봉사활동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 경로당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활동 • 사교단체 활동 • 문화활동단체 활동 • 운동단체 활동

제3절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기존의 관련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활동의 다양한 개별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활동(Li and Perraro, 2005; 고양곤 외, 2001), 종교활동(김미숙·박민정, 2000) 경로당(김욱, 2006), 노인교육참여(이금룡, 2002; 한정란, 2006) 등 개별활동에 초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많은 관심이 공급자 중심적인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논의의 흐름이 노인의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만족도 제고라는 측면보다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노인의 진정한 내면의 욕구에 대한 파악과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와 생애경험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라고 하는 주도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노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셋째, 사회참여 실태에 대한 전국조사결과(오영희 외, 2005)나 소규모 조사결과에 기초한 경험적 기술이나, 개별 사회참여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양적 접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 사회활동 자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자(actor)로서의 노인에 주목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여부와 사회참여활동을 어떻게 조합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행태를 결정하는 개인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노인이 사회참여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개인적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사회활동참여 의사는 있으나 관련 정보의 부족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는 참여한다면 어떠한 사회참여 항목들을 왜, 어떻게 선택하여 행동에 옮기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양적 접근과 더불어 질적 접근을 혼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외부에서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참여활동이 아니라 노인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참여활동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화와 노년기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사회활동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노년기 사회참여에 관한 이론적 관점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해하는데 있어 함의를 갖고 있는 이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분리이론

분리이론은 노인은 그 전단계의 활동수준을 저하하고 수동적인 역할을 찾고 자신의 내부의 삶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보며, 이러한 과정이 개인적인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분리이론은 노인 집단 내 개인의 선호와 인

구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구조와 기회구조의 차이 등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지속이론

지속이론은 인간은 성인기를 통하여 형성한 특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은 분석단위를 개인에 초점을 두으로써, 노화과정을 수정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외부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다. 활동 이론

활동 이론은 노인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함으로써 후기 삶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고 본다. 노인은 다양한 생산적인 역할을 하며, 자발적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노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유지되고, 적응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기를 중년기의 확장으로 보는 것으로 노년기를 분리된 삶의 기간으로 간주하는 분리이론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론의 논점은 Rowe & Khan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Rowe & Khan(1998)은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을 통하여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active engagement with life)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라. 역할이론

역할이론은 한 사회는 주어진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한다는 믿음체계인 연령규범(age norms)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령규범에 의해 노인은 노인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사회화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역할이론은 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이후 여생의 역할변화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마.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 개인,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 이 관점은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활동 또는 분리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자아와 사회 모두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바.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철회와 고립은 체계적 욕구나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회 내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간의 '투자과 회수 (investments and returns)'의 교환과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노화에 따라 기회 구조와 역할, 기술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은 전형적으로 사회관계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더 적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된다. 반면 노인의 경제·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 지라도, 존경과 인정, 사랑, 현명함, 자원봉사 활동력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사회는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우리사회가 가치 있다고 판단

하는 비물질적 자원을 최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사. 정치경제학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년기에 적응하며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구조적 특성이므로, 사회계층이 노인이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본다.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제약요인이 노화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연령뿐만 아니라 계급, 성, 인종, 민족에 의해 유형화되며, 경제 또는 사회정책에 의해 제도화되고 강화되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기회와 선택 그리고 후기 삶의 경험을 제한하게 된다고 본다.

3.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능

사회참여는 노인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사회참여는 노후에 경험하는 고통중 하나로 언급되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무위를 완화해 줄 수 있다. 사회통합은 가족외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구조에 연결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역할로 측정될 수 있다.

사회참여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욕구의 충족, 취미생활을 포함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욕구의 충족,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욕구의 충족, 스포츠 활동을 통한 스포츠욕구의 충족,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심리욕구의 충족 등 노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이근홍, 2001).

거의 모든 문헌이 사회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회참여활동은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참여를 통하여 노인이 건강이 증진되고(Rowe & Kahn, 1998),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김옥, 2006; 양순미·홍성례·홍숙자, 2004),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나향진, 2004). 이러한 논의는 노인은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노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기초하여 있다. 즉, 노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집단활동과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참여욕구가 퇴직이나 건강악화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할 때 자아정체감이 저하되어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한편,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에 관한 연구(Hall & Wellman, 1985)는,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가 증대하고 구성이 다양화됨으로써 노인에게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인들은 다른 삶의 단계에서와는 달리 사회적 지지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 사회적 지지자원의 급격한 감축과 사회적 지지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므로, 사회활동을 통하여 그러한 사회적 연계망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주로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정도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에 한정된 노인보다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 동시에 연계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박경숙, 2000). 즉,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활동이 다른 삶의 단계보다 노년기에 들어와 그

의미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참여는 직접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제4절 이론적 쟁점들

사회참여활동의 개념 정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보는 다양한 이론의 검토, 사회참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나타난 이론적 쟁점 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년기의 연속성과 분리성

앞서 살펴본 제 이론들은 노년기를 중년기와 분리된 시기로 보는가 아니면 중년기의 확장으로 보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상이한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활동이론이 중년기와 분리되지 않는 노년기를 이야기한다면, 분리이론은 중년기와 분리된 시기로서의 노년기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활동이론이나 분리이론은 특정 방향성을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역할이론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즉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자아를 형성·유지해간다고 하는 점에 주목한다. 단지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며, 개인은 그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특정 역할을 선택·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노년기는 중년기의 확장일수도 있고 분리된 특성을 갖을수도 있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령 규범(age norms)에 의하여 노인에게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사회화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노화에 잘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노년기의 역할변화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Hagestad & Neugarten, 1985).

한편,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차이를 연결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개개인이 노화의 의미와 사회적 기대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가는가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환경적 긴장과 개인의 욕구가 모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노년기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가 노년기의 진입과 그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대하여 노인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한 사회가 노년기와 노인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그러한 사회적 환경에 노인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가에 관심에 기초할 때 가능할 것이다. 노인의 반응은 사회참여의 철회나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에서 가치있는 활동으로 여겨지는 가치적인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사회참여에 있어서의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사회참여의 행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관한 논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노년기에 관한 주류 이론을 형성해온 분리이론이나 지속이론이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면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개인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역할이론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연령규범을 논의의 중심에 불러옴으로써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상

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이 사회구조적 요인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반응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는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노인'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본 연구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 첫째,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차원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령규범(age norms)에 의하여 노인에게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사회화하게 되는데, 연령분리적 사회인 사회에서는 노인이 배우자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그에 기초해있던 정체성에서 벗어나 천천히 여가를 즐기는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령분리적 사회에서는 노인이 활동수준을 낮추고 수동적인 역할을 찾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저하할 것을 요구받으며, 또한 그러한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연령통합적 사회라면 단지 연령에 의하여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사회가 노인과 노년기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노인 개개인의 사회참여 실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노인이 타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시 갖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의 규모가 노인의 사회참여 행태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정도와 행태는 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중요하다. Dowd(1980)는 사회적 철회와 고립은 체계적 욕구나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 사회 내 노인이 다른 구성원들 간의 교환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노년기에 들어와 노인이 갖고 있는 권력과 연계된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이 연령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인 욕구와 자원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타 연령층에 비하여 노인들은 이러한 정서적 지지자원과 현명함 등 생애동안 누적해온 무형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교환의 양이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단지, 노인이 교환관계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아니라 내용이 변화하는 것이며, 문제는 이러한 변화된 자원의 내용에 대하여 한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가이다.

3. 사회참여활동의 복합성

노인은 주어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고 다양한 대응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의 사회참여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복합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관계가 이웃,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집단 등과 같은 다양한 비공식적 및 공식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노인 개개인이 향유하는 사회참여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노인이 사회참여를 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그 근간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노인이 사회참여를 하는 동기로는 크게 이타적 동기, 자기만족, 학습동기, 사회적 관계 동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욕구는 한가지 활동을 통하여 충족될 수는 없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는 남을 돕고 싶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싶다 등과 같은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삶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욕구의 충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활동이다. 반면 학습활동에의 참여는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얻고, 삶의 의미나 목적을 확인하는 학습동기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또한, 감정적인 유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교단체 활동 등은 친구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참여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 동기의 만족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가지 사회참여활동을 한다가 보다는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히 할 것인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등이 과심사가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참여활동 자체가 다양하다.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둔 경제활동부터,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 어떠한 활동을 선택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노년기가 이전 시기에 비하여 개인의 향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하여 그 개인의 선택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노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다양한 경험, 개인의 특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있어서의 구조적 제한점 등이 이러한 사회활동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두 연령분리적인 사회라는 점(정경희, 2007), 노인이 선호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선호가 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별로 다르다는 점(정경희 외, 2005)에서 특히 이러한 복잡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위에서 살펴본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의 복잡성은 개별 사회활동에 관심을 두어온 파편적인 연구로는 노인의 사회참여의 총체적 모습을 담아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제3장 연구방법 및 분석틀

제1절 혼합방법론

지금까지 사회현상의 객관적 실체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해 왔다. 한 가지는 일명 '실증주의'로 명명되는 조류로서, 자연대상을 탐구하는 데 이용되었던 방법만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구성주의' 혹은 '해석주의'로 칭해지는 다른 조류는 그 같은 실증주의 과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를 경우 인간의 경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상당부분 간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적분석방법과 질적분석방법으로 대변되는 두 가지 조류는 서로 팽팽한 긴장과 대립을 형성하며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발전되어 왔는데 사실상 사회가치관이 점점 실용주의적인 것에 대한 선호로 기울면서 특히, 사회현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목표로 하는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양적 분석방법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양자가 가진 장점과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서 혼합방법론 패러다임이 제기되고 있다. 혼합방법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방법론의 문제가 단지 인간의 문제와 사회현상을 더 잘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는 '도구'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지식이란 궁극적 실재에 관한 언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최고의 이해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도구로서의 방법론은 단지 최고의 이해력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양적 분석방법은 쿤(Khun, T.)이 말하는 '정상과학' 패러다임 속에서의 연구를 위해 설계되어 인간 경험의 이례적 속성을 무시할 수 있으며, 질적 분석

방법은 느낌이나 사고과정, 권력의 작동방식과 같이 사회현상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이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반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혼합방법론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형이상학적 진리를 찾기보다는 '행함에 도움을 주는 신념(what works)'이 진리라고 보았으며 양적-질적 방법이 공약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참여에 대한 통합적 관점 및 노인중심적 관점하에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별 특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분석의 방법으로서 혼합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수요자 중심적' 관점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 현상, 및 그와 관련된 조건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할 뿐 아니라, 보다 노인 중심의 관점에서 이같은 양적 결과들에 대한 이해 및 이면에 작용하는 논리와 가치관, 권력 등을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그 수요자인 노인에 대한 심층면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혼합방법론에 대한 주장은 단지 방법론의 통합을 넘어서서 연구문제의 설정, 연구설계, 자료의 분석, 자료의 해석 등 연구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각 패러다임이 혼합될 것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혼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패짓(Padgett, 2005)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용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질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로 진행되는 방식(질적⇒양적)으로, 처음 단계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탐색적 연구가 먼저 진행되고 다음 단계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념에 대한 조작화 및 가설검증 위주의 양적 연구가 실시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양적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진행되는 방식(양적⇒질적)으로, 이는 양적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가 질적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양적⇔질적)으로

서 연구자에 따라 두 가지 연구방법에 동일한 비중을 둘 수도 있으며 어느 한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세 번째 방식을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양적분석으로부터 도출한 현상에 대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이면의 맥락 등을 풍부하게 해석하고, 보다 현실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양적분석

1. 선행연구 검토

고령화와 함께 노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 경제적 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경제 등 타 분야에 비해 노인이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그동안 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함께 다루어졌으며, 두 개념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졌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여가활동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자연스레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논의 역시 지극히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해 윤종주(1994)는 노인이 직업이나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 복수의 노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권익을 추구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노인운동을 전개하는 집단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참여를 사회활동, 사회통합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혹은 각각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박정은 외, 1994).

한편, 조추용(2003)은 노인의 특성상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는 비

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여가활동은 자유롭고 오락이 포함된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참여는 생산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은 매우 유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노인의 사회참여는 사회적·경제적·조직적 성격이 강조되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분야는 경제활동, 교육활동, 운동활동, 단체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노인권익신장 운동 등을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연구의 양적분석을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주요 변수 위주로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가 여가생활과 부분적으로 중복된다고 판단하고, 노인의 여가를 비롯한 직업, 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모두 고려하였다.

가. 성별

노인들의 생활은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별과 관련된 노인문제는 두 가지 현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 다른 하나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석, 2003).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의 차이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성 노인들은 사회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전문성취형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별다른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단순 경제형 직종을 선호한다(김동배 외, 2004).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직업을 원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사회참여의 성별 차이는 사회참여의 범위가 넓은 만큼, 그 방향성이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오영희 외, 2005). 노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04). 노인의 사회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남성은 봉사활동, 자아계발 등 인생을 즐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양순미 외, 2004).

나. 연령

노인의 연령은 건강, 경제 등 노인의 삶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연령을 주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취업 등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현기, 2001; 이경희, 2004; 허준수, 2006).

하지만, 연령이 노인의 건강이나 경제, 사회참여와 단순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집단의 전체 연령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이미 연령에 따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노인을 전기(young-old)와 후기(old-old)로 구분하고 있다(이인정, 1999; 김미령, 2006; Neugarten, 1968).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빈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ecombe & Ishii-Kumtz, 1991). 전체적으로 30년 이상의 연령차는 노인집단 내 신체적·정신적 문제 및 장애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일제강점기, 전쟁 등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연령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유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가치관 및 행동방식은 매우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정 경험을 공유한 세대별 접근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인의 직업, 소득, 건강, 가치관, 생활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구대상이 노인일 경우 교육에 의한 영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 누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수준은 노인 관련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며,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직업, 평생교육,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및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박주문, 1999; 오영희 외, 2005; 정경희 외, 2005).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수준을 연령과 함께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수준은 노인의 취업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높이며, 실제 취업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04; 허준수, 2006; 황진수 외, 2001). 또한, 교육수준은 성별, 연령, 종교, 가족형태 등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7).

라. 거주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경제·사회·문화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차별성은 두 지역의 노인들의 삶에도 많은 차이를 낳고 있다. 농촌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의료 및 여가시설이 열악한 위치에 있다. 산업의 특성상 농촌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도시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촌의 다른 조건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에서는 농어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에 비해 사회단체, 교육, 자원봉사 등 일반적인 사회활동 분야의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오영희 외, 2005; 정경희 외, 2005). 또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적 관계유형은 고립적인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 2000). 반대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안녕감이 높다고 밝힌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김태현 외, 1999).

마. 건강상태

노년기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이 감퇴하는 시기이다. 노인의 건강쇠퇴는 독립적인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는 노인들의 취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권승·황규선, 2004).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노인의 사회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체기능의 제약 정도 및 특성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해하기 위해 건강상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척도는 병리적 현상에 초점을 두고 만성질환의 종류와 수를 확인하는 것과, 기능 수준에 기초하여 일상생활능력 등 기능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상태는 많은 연구에

서 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만성질환의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김주현·한경혜, 2001; 김태현 외, 1999; 박경숙, 2000).

바. 경제수준

경제수준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분야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인의 경제수준은 경제활동을 제외한 종교, 교육,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수준은 노인들이 좀 더 의미 있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노인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및 종교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수연, 1988; 정경희 외, 2005). 또 노인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통해 얻는 자아존중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현·한경혜, 2001).

반면 노인의 경제수준은 직업 등 경제활동 분야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은 직업을 위해 무리할 이유가 없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한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노인의 69.9%, 미취업노인의 56.8%가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또 경제적 자원이 낮은 수준에 있는 미취업 노인일수록 재취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진수 외, 2001). 경제수준이 노인의 사회참여 분야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사. 노후준비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 여부는 노년기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될 수 있다. 연금, 보험 등을 통한 적절한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이다. 노후준비가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제수준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노후준비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는 아직 경제활동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이현기(2001)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률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갖지만 전문대 이상 고학력 집단의 재취업률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고학력 노인들의 노후준비가 재취업 욕구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Wise(1997)는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급여와 퇴직연금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고령근로자들의 퇴직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최장기 직업

노인의 과거 최장기 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고, 공식집단과의 연계 등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노인의 현 직업이 사회참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과거 최장기 직업을 살피는 것은 노인의 사회계층을 파악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종사하였던 직업에 따라 노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의 성격과 사회참여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전문직 출신과 농업 등 일차 산업 출신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관계 및 친밀도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박경숙(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최장기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고립형의 사회적 관계를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과거 직업은 평생교육 욕구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교육 욕구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04).

자.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

사회복지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 및 복지는 주로 가족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는 노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김두섭 외, 2000; 김정석, 2003). 가족 및 가구형태에 관한 관심은 주로 가족에 의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배우자유무에 따른 혼인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자녀동거 등 세대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혼인상태는 주로 노인 개인의 배우자유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정서적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태현 외, 1998).

세대관계는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 세대간 동거여부와 자녀의 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기능적·정서적 지원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동거 여부 및 자녀의 수에 관심을 가져왔다(김경혜, 1998; 유성호, 1996, 2000; 정경희, 2002). 그러나 노인의 세대관계 및 거주유형은 부양책임, 정서적 갈등, 개인적인 선호와 연관되어 복잡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정경희(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자녀동거여부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결혼상태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으며, 경제적 독립성과 개인적 선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세대관계는 결혼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자료 및 조작적 정의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크게 가구조사와 노인 개인조사로 구성되며, 분석을 위해 노인 개인조사를 중심으로 가구소득 등 가구조사의 일부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개인의 경험 및 선호와 연관된다. 조사과정에서 채택된 대리응답 방식은 본 연구의 성격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3,029명을 양적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직업 및 경제활동을 포함한 각종 단체활동, 교육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교육, 자원봉사, 경로당 등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9가지 영역을 노인의 사회참여 분야로 선정하였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활동의 참여경험이나 단체 가입여부에 관한 것으로 모두 '참여', 또는 '불참'으로 재정리하였다. 교육(평생교육)과 자원봉사 등 일부 비정기적인 활동의 경우 과거 경험까지 '참여'로 해석하였으며, 직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례만 '참여'로 분류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를 고려하였다. 연령은 만나이를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학력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교육년수로 변환하였다. 동부와 읍·면부로 구성된 거주지는 동부를 도시지역, 읍·면부를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가구소득, 용돈, 노후준비 여부를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였으며, 용돈 역시 노인 개인의 월평균 용돈을 사용하였다. 노

후준비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노인의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는 혼인상태와 세대관계를 함께 고려하였다. 혼인상태 및 세대관계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지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유무를 파악하였으며, 세대관계는 자녀동거 유무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3-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사회참여 분야	직업	직업유무: 없음 = 0, 있음 = 1	
	종교	종교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문화	문화활동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운동	운동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사교	사교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정치	정치 및 직능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교육	평생교육 경험: 경험없음 = 0, 경험있음 = 1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경험: 경험없음 = 0, 경험있음 = 1	
	경로당	경로당 이용여부: 이용안함 = 0, 이용함 = 1	
독립변수	성별	남성 = 0, 여성 = 1	
	연령	만 나이	
	교육	교육년수로 변환	
	거주지	동부 = 0, 읍·면부 = 1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 총소득) / 가구원 ³	
	용돈	월평균 용돈	
	노후준비	아니오 = 0, 예 = 1	
	혼인상태	무배우 = 0, 유배우 = 1	
	세대관계	자녀동거 안함 = 0, 자녀동거 = 1	
	건강상태	SUM (IADL 10문항)	
	최장기 직업		전문직 = 고위임원/전문가/준전문가
			사무직 = 사무/서비스/판매
			생산노무직 = 농어축산업/기계 등 기타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활동이 필요한 사회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객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건강상태와 관련된 주관적 문항들을 배제하였다. 또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등을 묻는 기본적 일상수행능력(ADL) 보다,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수단적 일상수행능력(IADL)이 노인의 사회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수단적 일상수행능력(IADL)을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최장기 직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 문항은 세부직업분류표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이를 다시 전문직, 사무직, 생산노무직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3. 분석방법

사회참여 및 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양적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직업, 종교, 문화, 운동, 사고, 정치, 교육, 자원봉사, 경로당 등 사회참여 각 분야별 노인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였다. 거주지 및 노인의 일반특성에 따른 기술적 통계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다양한 사회참여 분야의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각 분야별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사회참여 각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여가생활 등 노인의 사회활동은 그 분야에 따라 목적 및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박경숙, 2000; 이영숙, 2007; 이은희, 2003; 조추용, 2003)에 의해 유형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참여 노인을 어떤 분야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 노인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회참여 노인들을 다시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참여 유형의 분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분석대상들을 상호관련성에 의해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탐색적으로 실시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결과를 통해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한 사회참여 유형의 분류는 각 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참여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일 때 사용되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이다. 분석과정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 사회참여 각 유형별 결정요인을 타 유형과의 비교속에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을 기준변수로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비참여 집단의 결정요인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질적 분석: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질적인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적절성과 충분함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적절성은 여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고 선택하는 것이며,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의 질적분석의 적절성을 위해 분석 대상자를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노인과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면접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으로 구분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의 결과, 이들 세 지역의 경우 노인관련 시설 및 인프라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의 충분함을 위해 면접은 크게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면접은 양적분석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양적분석 결과와 1차 면접 결과에 대한 대조분석 작업 후 양적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면접 내용을 예각화시켜 2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충분성을 위해 면접 인원은 사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총 16명(1명은 2회에 걸친 인터뷰)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도시지역 노인 5인, 도농복합지역 노인 5인, 농어촌지역 노인 6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6명 가운데 사회참여를 하는 노인이 9인, 별다른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이 7인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면접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 수집 형태의 하나로서 정보를 유도해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형식화한 것이다(신경림 외, 2004). 질적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면담에서부터 구조화된 면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면담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질적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비지시적,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시작한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면접법의 취지를 살리고 참여자의 면접 과정에 능동적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에 임했다. 면접시간은 노인의 체력적 조건을 감안해 1인당 최대 1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표 3-2〉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사례	면접일자	인적사항	비고
1	2006.10.10	20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2남 4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따로 살고 있다. 과거 체물포와 잡화점을 했으며, 70세에 장사를 접었다. 지금은 몸이 아픈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도시
2	2006.10.12	38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딸과 아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라이온스클럽에서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자체적인 친목회를 결성해서 친목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도시
3	2006.12.06	38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두 아들을 두고 있다. IMF 이전 도매시장에서 의류판매를 했으나 사업이 망한 후에는 아내가 음식점에서 일해서 가사를 꾸려나가고 있다. 교회활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도시
4	2006.12.08	40년생 여성으로, 자녀는 3남 1녀이며, 현재는 사업에 실패한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작고)을 대신해 40년 동안 종로에서 노점상을 하며 가정을 꾸려왔다. 노점 외에 주변사람들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회활동을 하진 않고 있다.	대도시
5	2006.12.10	35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없으며,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과거 화가로 일했으나, 10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산에서 휴지를 즐기거나 공원에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대도시
6	2006.10.17	41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다. 자녀는 3녀 1남이며, 따로 살고 있다. 과거 공무원, 택시기사, 교회부설 양로원 원장으로 일했다. 퇴직 후 심장병을 앓다가 완쾌된 후 노인복지회관에서 소개한 자원봉사활동(노인학대지킴이, 교통정리, 아동신문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다.	중소도시
7	2006.10.18	40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중졸이다. 자녀는 1남 2녀를 두었고, 퇴직군인인 남편과 함께 따로 살고 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당뇨병을 앓고 있다. 현재 권사로 있는 교회의 부설 실버대학과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중소도시

〈표 3-2〉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계속)

사례	면접일자	인적사항	비고
8	2006.10.17	31년생 여성으로, 과거 경찰로 일했다. 3남 2녀를 두었고, 현재 큰 아들, 손자 내외, 증손자 13명이 함께 살고 있다. 퇴직 후 잠시 농사를 짓다가 다시 도시로 나와 생활하고 있다. 동네 부녀회에서 장구 교사로 봉사하는 일 외에는 친구들과 노인시설과 시내를 순회하면서 지낸다.	중소도시
9	2006.10.14	33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무학이다. 자녀는 5남매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살고 있다. 결혼 후 무직인 남편과 살면서 복덕방, 재래시장 장사, 결혼 중매, 계모임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지금은 혼자 살면서, 주로 고물수집과 발농사를 짓고 있으며, 경로당에서 소일하며 보내고 있다.	중소도시
10	2006.11.25	35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다. 자녀는 3남 1녀를 두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맞벌이하는 아들부부의 아기를 돌보며 함께 살았으나 현재는 따로 산다. 결혼 후 현재까지 전업주부로 살았고, 사회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다. 2006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중소도시
11	2006.10.25	43년생 남성으로, 현재 거주지역에서 농업과 다방을 겸업하며 경제생활을 꾸리고 있다. 과거에 산악회, 라이온스클럽, 임업협동조합 등에서 간부로 활동했었고, 현재는 바르게살기운동 ○○군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농어촌 지역
12	2006.10.25	32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대졸이다. 자녀는 3남 2녀를 두었으며 따로 살고 있다. 과거 농촌지도자연합회 공무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군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자원봉사를 했으며, 지방자치제 선거에 출마를 하는 등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현재는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13	2006.10.28	27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중졸이다. 자녀는 2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산다. 과거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현재는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시설 미비지역인 농촌에서 전체 생애를 살았고, 퇴직 후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농어촌 지역

<표 3-2>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계속)

사례	면접일자	인적사항	비고
14	2006.10.27	35년생 남성으로,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 과거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고, 의사인 두 아들의 용돈과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퇴직 후 가풍에 따라 유교 장이로 2년간 활동한 적이 있다. 그러나 노인시 설미비지역에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친구들과의 친교 외에 별다른 활동 없이 보내고 있다.	농어촌 지역
15	2006.10.25	36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대졸이다. 자녀는 1녀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산다. 과거 세관 공무원과 관유리회사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1986년 부모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산(家産)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 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고, 성당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16	2006.10.25	42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대졸이다. 자녀는 1녀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산다. 일간지 기자로 있다가,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10년 전 불치병을 앓아 오른손과 오른발이 불편하다. 주로 성당에서 봉사활동과 신앙모임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제4장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및 실태

이 절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영역을 크게 직업 및 경제활동,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분야의 단체활동, 평생교육, 경로당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로 지역 또는 일반특성별 비교를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절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¹⁾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제1절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1. 직업 및 경제활동

먼저 노인의 경제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월평균 용돈을 확인하였다.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노인가구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도시지역 노인가구가 농어촌지역 노인가구에 비해 높은 경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지역 월평균 가구소득은 87.92만원인 것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63.42만원으로 도시지역의 약 7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노인의 월평균 용돈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15.45만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13.67만원이었다. 농어촌지역 노인의 월평균

1) 이 절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 자료의 전체응답자 3,278명 중 본인응답자 3,02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승수적용 및 반올림 관계로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백분율의 합이나 사례의 합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용돈은 도시지역 노인의 월평균 용돈의 약 88%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차이에 비해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에 따라 노인의 월평균 용돈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1> 지역별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용돈

(단위: 만원)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¹⁾	87.92	63.42	80.00
월평균 용돈	15.45	13.67	14.88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은 '월평균 총가구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한 값.

노인의 직업 및 경제활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노인의 직업활동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는 노인의 비율이 1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도시지역 노인이 21.5%로 농어촌지역의 50.1%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농어촌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직업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지역별 노인의 직업활동 유무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10.7	5.1	8.9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67.8	44.8	60.4
현재 일을 하고 있다	21.5	50.1	30.7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7)	(3,029)

지역에 따른 노인의 직업활동 차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3>은 전국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6개 광역시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전국 평균인 30.5% 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은 전국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48.7%와 45.9%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전국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구직기간 1주기준, 단위: %)

시도별	1995	2000	2005	2006
전국	27.9	29.6	30.0	30.5
서울특별시	18.7	22.3	21.6	22.3
부산광역시	21.4	19.4	19.2	20.1
대구광역시	11.6	17.6	25.9	24.3
인천광역시	22.1	16.7	18.6	20.4
광주광역시	22.4	22.4	21.8	20.7
대전광역시	15.5	16.0	17.3	17.0
울산광역시	-	26.8	27.9	28.0
경기도	20.2	19.5	25.1	24.9
강원도	30.3	32.4	31.6	33.5
충청북도	35.7	32.2	34.2	34.5
충청남도	39.0	42.6	42.3	45.9
전라북도	38.5	37.1	34.0	37.7
전라남도	42.6	47.1	47.3	47.2
경상북도	38.6	45.6	42.9	43.3
경상남도	27.4	34.6	36.1	36.3
제주도	38.2	41.9	48.6	48.7

자료: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현재 취업중이라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먼저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지역별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농어촌지역의 비율이 75.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도시지역 노인들은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부터 단순노무종사자 등 숙련기술 및 단순기술이 필요한 직종까지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직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농어촌지역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4〉 지역별 노인의 현재 종사직종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3.2	0.6	1.8
전문가	1.8	0.6	1.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	0.8	1.1
사무종사자	1.1	0.2	0.6
서비스종사자	5.4	1.6	3.4
판매종사자	7.7	3.5	5.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30.2	75.4	5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2	0.8	1.9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0	0.8	2.8
단순노무종사자	41.2	15.6	27.8
계	100.0	100.0	100.0
(명)	(444)	(488)	(932)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근무형태는 주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낮은 대신, 고용주와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근무형태의 차이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4-5〉 지역별 노인의 근무형태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자영업자	40.7	57.1	49.3
고용주	3.6	0.8	2.1
무급가족종사자	10.6	23.5	17.4
상용근로자	5.7	0.8	3.1
임시근로자	11.1	3.5	7.1
일용근로자	19.0	12.5	15.6
기타	9.3	1.8	5.4
계	100.0	100.0	100.0
(명)	(442)	(489)	(931)

또 노인이 일을 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전체의 69.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사람들과 사귀거나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높은 것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지역별 노인의 현취업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일하는 것이 좋아서	8.1	5.1	6.6
돈이 필요해서	71.1	68.9	69.9
건강유지를 위해서	9.9	9.4	9.7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3.4	6.1	4.8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3.8	1.4	2.6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	0.4	0.2
일손이 모자라서	2.9	8.0	5.6
기타	0.7	0.6	0.6
계	100.0	100.0	100.0
(명)	(443)	(488)	(931)

노인의 취업만족도는 농어촌지역의 노인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참조). 구체적인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량에 대한 불만족 순이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임금에 대한 불만족은 낮은 편이며,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7〉 지역별 노인의 취업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매우 만족한다	6.3	2.2	4.2
만족하는 편이다	33.0	32.9	32.9
그저 그렇다	26.6	23.7	25.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8.2	33.5	31.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9	7.8	6.9
계	100.0	100.0	100.0
(명)	(443)	(490)	(933)

〈표 4-8〉 지역별 노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임금	54.3	45.8	49.4
업무내용	11.9	18.7	15.8
업무량	31.1	35.0	33.3
복리후생	1.3	-	0.6
인간관계	0.7	0.5	0.6
기타	0.7	-	0.3
계	100.0	100.0	100.0
(명)	(151)	(203)	(354)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여부는 지역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인들(71.7%)이 계속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직을 생각하거나 이직을 시도하는 노인의 비율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지역별 향후 계속 취업 희망여부 및 이직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계속 취업 희망			
그만두고 싶다	26.7	28.2	27.5
계속하고 싶다	73.3	71.8	72.5
계	100.0	100.0	100.0
(명)	(442)	(489)	(931)
이직여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찾고 있다	2.2	-	1.0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직하고 싶다	6.2	0.6	3.3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91.7	99.4	95.7
계	100.0	100.0	100.0
(명)	(324)	(351)	(675)

다음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이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58.2%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는 농어촌지역에서 71.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8.8%로 도시지역 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두 지역의 산업구조와 보건의료체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10〉 지역별 노인의 미취업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7.9	4.3	7.1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	5.7	3.5	5.2
건강이 좋지 않아서	54.1	71.6	58.2
일자리가 없어서	19.7	8.8	17.2
가사(집안일)/가족수발 때문에	8.3	4.7	7.5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2.6	5.1	3.2
기타	1.7	1.9	1.8
계	100.0	100.0	100.0
(명)	(1,606)	(486)	(2,092)

〈표 4-11〉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취업 희망 여부			
아니오	79.7	91.4	82.4
예	20.3	8.6	17.6
계	100.0	100.0	100.0
(명)	(1,607)	(488)	(2,095)
취업 희망 이유			
일하는 것이 좋아서	6.4	4.8	6.3
돈이 필요해서	58.0	45.2	56.5
건강유지를 위해서	15.3	23.8	16.3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3.4	2.4	3.3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5.8	11.9	6.5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10.7	9.5	10.6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하여	-	2.4	0.3
기타	0.3	-	0.3
계	100.0	100.0	100.0
(명)	(326)	(42)	(368)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는 <표 4-11>에 취업 희망 이유와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 미취업 노인들 중 17.6%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고, 도시지역의 취업 희망 비율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취업 희망 이유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았지만, 도시지역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경제적 이유 외에도 건강유지나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다는 응답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지역별 노인의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구직활동 여부			
아니오	64.5	63.6	64.4
예	35.5	36.4	35.6
계	100.0	100.0	100.0
(명)	(355)	(44)	(399)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소개시켜 주는 기관을 몰라서	4.0	6.9	4.3
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40.0	34.5	39.4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38.2	48.3	39.4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로	13.8	6.9	13.0
기타	4.0	3.4	3.9
계	100.0	100.0	100.0
(명)	(225)	(29)	(254)

주: 미취업 노인에 이직을 희망하는 노인 포함.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구직활동 여부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노인들 중 35.8%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구직활동 여부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도시지역 노인들은 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농어촌 지역 노인들에 비해 높았다. 반면,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미취업 노인과 이직을 원하는 노인들이 원하는 일의 형태를 살펴보면,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와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의 형태가 각각 전체의 36.5%와 37.0%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원하는 비율도 2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던 향후 취업 이유와 함께 살펴보면, 노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오직 경제적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4-13〉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원하는 일의 형태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23.8	23.3	23.7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	35.2	46.5	36.5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	38.7	23.3	37.0
자영업(창업)	2.3	7.0	2.8
계	100.0	100.0	100.0
(명)	(349)	(43)	(392)

주: 미취업 노인에 이직을 희망하는 노인 포함.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선호하는 기준을 살펴보다도 이 같은 사실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일의 양과 시간대 역시 임금수준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과의 연관성, 업무내용, 출퇴근거리 등 다양한 요인이 일자리를 구할 때의 선호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일자리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임금수준	24.1	15.6	23.2
일의 양과 시간대	20.7	24.4	21.2
과거 경험과의 연관이 있는 일인가 여부	15.9	17.8	16.1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업무내용 여부	4.0	2.2	3.8
기타 업무(일) 내용	19.0	17.8	18.9
복리후생(휴가 등 복지제도)	0.3		0.3
집과의 거리(출퇴근거리)	11.9	20.0	12.8
사업장 규모	0.3		0.3
계속고용 가능여부	3.1	2.2	3.0
기타	0.6		0.5
계	100.0	100.0	100.0
(명)	(352)	(45)	(397)

주: 미취업 노인에 이직을 희망하는 노인 포함.

〈표 4-15〉 지역별 노인의 취업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15.0	23.1	17.6
일자리 연계(취업알선)	60.5	55.3	58.9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10.1	7.7	9.4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1.5	1.5	1.5
노인적합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6.3	5.8	6.2
기타	6.4	6.5	6.4
정부지원 필요없음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2,026)	(945)	(2,971)

노인의 취업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들의 절반이상이 취업알선 등의 일자리 연계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취업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종교단체 활동

여기에서는 노인들의 사회단체활동 중 종교단체 활동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종교단체 가입여부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도시지역에서 좀 더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47.9%의 노인들이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지역별 노인의 종교단체 가입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50.9	54.7	52.1
가입	49.1	45.3	47.9
계	100.0	100.0	100.0
(명)	(2,051)	(978)	(3,029)

종교단체에 가입한 노인들의 월 참여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월 1회 미만이 33.0%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또는 주 2-3회 참여한다는 응답도 각각 25.2%와 18.7%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노인들은 농어촌지역 노인들에 비해 주 1회 또는 주 2-3회 참여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지역 노인들은 주로 월 1회 미만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이 같은 참여빈도 차이는 두 지역의 종교활동 참여도의 차이는 물론, 생활환경, 종교구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지역별 노인의 종교단체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거의매일	10.7	6.6	9.4
주 2~3회	19.6	16.5	18.7
주 1회	27.6	19.9	25.2
2주에 1회	4.8	2.9	4.2
월 1회	9.3	9.5	9.4
월 1회 미만	28.0	44.6	33.0
계	100.0	100.0	100.0
(명)	(1,008)	(442)	(1,450)

지역별 노인의 향후 종교단체 가입 희망여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향후 가입하겠다는 응답과 향후 가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는 가입하겠다는 비율이 조금 더 많았고, 반대로 농어촌지역에서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8〉 지역별 노인의 향후 종교단체 가입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49.3	54.1	50.8
가입	50.7	45.9	49.2
계	100.0	100.0	100.0
(명)	(2,048)	(978)	(3,026)

3. 문화활동단체 활동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합창단, 연극, 연극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활동단체의 참여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문화활동단체에 가입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0%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지역별 노인의 문화활동단체 가입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98.9	99.3	99.0
가입	1.1	0.7	1.0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8)	(3,030)

노인의 문화활동단체 월 참여빈도는 전체적으로 그 사례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주1회 등 자주 참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지역별 노인의 문화활동단체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거의매일	-	-	-
주 2~3회	14.3	12.5	13.8
주 1회	33.3	12.5	27.6
2주에 1회	14.3	12.5	13.8
월 1회	19.0	37.5	24.1
월 1회 미만	19.0	25.0	20.7
계	100.0	100.0	100.0
(명)	(21)	(8)	(29)

문화활동단체에 대한 향후 활동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향후 가입을 원하는 노인의 비율은 1.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도시지역 노인들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더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2.0%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활동단체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은 노인들 스스로도 문화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1〉 지역별 노인의 향후 문화활동단체 가입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98.0	98.8	98.2
가입	2.0	1.2	1.8
계	100.0	100.0	100.0
(명)	(2,050)	(977)	(3,027)

4. 운동단체 활동

노인들의 활동 분야 중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운동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노인들의 운동단체 활동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노인의 운동단체 가입률은 전체 3.9%로 나타났으며, 도시 지역 노인들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더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다.

〈표 4-22〉 지역별 노인의 운동단체 가입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95.8	96.8	96.1
가입	4.2	3.2	3.9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8)	(3,030)

노인의 운동단체 월 참여빈도는 월 1회 정도라는 대답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월 1회 미만이라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운동단체 활동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노인은 4.8%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가입 희망비율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3〉 지역별 노인의 운동단체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거의매일	11.4	10.0	11.0
주 2~3회	12.5	3.3	10.2
주 1회	11.4	13.3	11.9
2주에 1회	14.8	3.3	11.9
월 1회	42.0	43.3	42.4
월 1회 미만	8.0	26.7	12.7
계	100.0	100.0	100.0
(명)	(88)	(30)	(118)

〈표 4-24〉 지역별 노인의 향후 운동단체 활동 가입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94.8	96.2	95.2
가입	5.2	3.8	4.8
계	100.0	100.0	100.0
(명)	(2,049)	(978)	(3,027)

5. 사교단체 활동

노인의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등 사교단체 활동 및 참여도는 문화활동 단체나 운동단체의 활동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사교단체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35.5%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교단체 월 참여빈도는 월 1회 46.5%, 월 1회 미만 30.0%로 대부분 월 1회 또는 그 미만의 횟수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노인이 좀 더 자주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월 1회 미만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지역별 노인의 사교단체 가입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63.9	65.7	64.5
가입	36.1	34.3	35.5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8)	(3,030)

〈표 4-26〉 지역별 노인의 사교단체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거의매일	2.3	1.2	2.0
주 2~3회	3.0	2.1	2.7
주 1회	7.3	4.8	6.5
2주에 1회	14.3	8.1	12.4
월 1회	49.1	40.9	46.5
월 1회 미만	24.1	43.0	30.0
계	100.0	100.0	100.0
(명)	(740)	(335)	(1,075)

향후 사교단체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 노인의 35.3%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27〉 지역별 노인의 향후 사교단체 가입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64.3	65.6	64.7
가입	35.7	34.4	35.3
계	100.0	100.0	100.0
(명)	(2,050)	(977)	(3,027)

6. 정치단체 활동

노인의 정치단체, 직능단체에서의 활동여부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인 중 2.0%만이 정치단체나 직능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8〉 지역별 노인의 정치 및 직능단체 가입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98.5	96.8	98.0
가입	1.5	3.2	2.0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7)	(3,029)

정치 및 직능단체에 가입한 노인들 중 60.3%가 주로 월1회 미만의 빈도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도시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및 직능단체의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빈도는 단체의 활동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29〉 지역별 노인의 정치 및 직능단체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거의매일	3.1	0.0	1.6
주 2~3회	0.0	3.2	1.6
주 1회	0.0	6.5	3.2
2주에 1회	3.1	9.7	6.3
월 1회	37.5	16.1	27.0
월 1회 미만	56.3	64.5	60.3
계	100.0	100.0	100.0
(명)	(32)	(31)	(63)

앞서 살펴본 가입여부와 마찬가지로, 향후 정치 및 직능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2.0%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0〉 지역별 노인의 향후 정치 및 직능단체 가입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미가입	98.5	96.8	98.0
가입	1.5	3.2	2.0
계	100.0	100.0	100.0
(명)	(2,050)	(978)	(3,028)

7.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절에서는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참여경험과, 실시 기관, 향후 참여의향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들 중에서 8.1%가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4.8%가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1〉 지역별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참여한 경험이 없다	86.3	88.9	87.1
현재 참여하고 있다	8.6	7.2	8.1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5.1	4.0	4.8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8)	(3,030)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주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대학과 종교기관의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대학을 이용한 비율이 농어촌지역 보다 높은데, 이것은 대학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4-32〉 지역별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	11.7	3.7	9.5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대학	44.1	31.5	40.6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 노인교실(학교) 등	10.7	14.8	11.8
종교기관의 노인대학, 노인교실(학교) 등	21.4	37.0	25.7
기타	12.1	13.0	12.3
계	100.0	100.0	100.0
(명)	(281)	(108)	(389)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향후 참여의향과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9.9%가 참여의향이 있으며 이들 중 70%가 넘는 다수가 여가·취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글·한자·수학교실 등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원하는 비율도 13.4%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의향이 없는 노인들은 그 이유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31.3%, 건강이 안 좋아서 26.0%, 시간이 없어서 15.9%,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7% 등으로 대답하였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 노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및 인식 부족에 관한 응답이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였다.

〈표 4-33〉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참여의향 및 희망 영역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향후 참여의향			
없다	78.1	84.3	80.1
있다	21.9	15.7	19.9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7)	(3,029)
향후 참여 희망 영역			
한글·한자·수학교실 등 기초학습	11.8	18.3	13.4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학습	7.3	3.9	6.5
여가·취미 프로그램	71.0	70.6	70.9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강좌	1.1	0.7	1.0
재취업 관련 프로그램	3.1	0.7	2.5
기타	5.8	5.9	5.8
계	100.0	100.0	100.0
(명)	(451)	(153)	(604)

〈표 4-34〉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시간이 없어서	15.1	17.5	15.9
건강이 안 좋아서	25.7	26.4	26.0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33.0	27.9	31.3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4	15.4	14.7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6.5	4.8	5.9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3.0	2.8	2.9
교육 장소가 멀어서	0.6	2.6	1.3
교육 장소를 몰라서	0.1	2.1	0.8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2	0.5	1.0
기타	0.4	0.0	0.3
계	100.0	100.0	100.0
(명)	(1,566)	(813)	(2,379)

8. 자원봉사 활동

이 절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과 분야, 그리고 향후참여의향과 각각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노인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노인은 10.7%,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참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경험이 없다	83.3	89.4	85.3
과거에는 참여한 경험이 있다	12.3	7.4	10.7
현재 참여하고 있다	4.3	3.3	4.0
계	100.0	100.0	100.0
(명)	(2,053)	(978)	(3,031)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 기본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70.7%의 노인들이 찬성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36〉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기본활동비 지급 필요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동부	읍·면부	전체
아니오	29.9	28.0	29.3
예	70.1	72.0	70.7
계	100.0	100.0	100.0
(명)	(2,018)	(951)	(2,969)

〈표 4-37〉 지역별 노인의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향후 참여여부			
없다	86.2	88.8	87.1
있다	13.8	11.2	12.9
계	100.0	100.0	100.0
(명)	(2,052)	(977)	(3,029)
향후 참여빈도			
1주일에 5회 이상	8.2	4.6	7.2
1주일에 3~4회	5.7	1.8	4.6
1주일에 1~2회	40.1	26.6	36.3
1개월에 2~3회	12.8	19.3	14.6
1개월에 1회	31.9	44.0	35.3
기타	1.4	3.7	2.0
계	100.0	100.0	100.0
(명)	(282)	(109)	(391)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 중 12.9%에 불과하였고,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13.8%로 농어촌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노인들의 비율이 14.6%이었다. 향후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겠다는 노인들의 비율이 참여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보다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노인들은 주로 1주일에 1~2회(36.6%), 1개월에 1회(35.3%)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노인들이 좀 더 자주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역사회봉사활동(52.7%)이나 사회복지분야(24.2%)의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4-38〉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향후 참여영역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사회복지분야	24.3	23.9	24.2
지역사회봉사활동	51.4	56.0	52.7
교통 및 환경분야	9.9	7.3	9.2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3.2	2.8	3.1
교육 및 문화예술	5.6	6.4	5.9
보건의료분야	3.9	3.7	3.8
국제협력	1.8	0.0	1.3
계	100.0	100.0	100.0
(명)	(284)	(109)	(393)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노인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45.8%,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6.7%, 시간이 없어서 17.2%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의향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전체
시간이 없어서	16.1	19.5	17.2
건강이 안 좋아서	47.0	43.2	45.8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6.2	27.8	26.7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4	3.5	3.4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4.9	3.5	4.5
봉사할 곳을 몰라서	0.6	0.8	0.7
봉사할 곳이 멀어서	0.0	0.2	0.1
할만한 활동이 없어서	1.3	0.9	1.2
기타	0.4	0.6	0.5
계	100.0	100.0	100.0
(명)	(1,744)	(861)	(2,605)

9. 경로당 활동

현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은 노인학교 및 노인교실을 포함한 노인대학 시설, 각 지역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마을단위로 자리잡고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은 세 가지 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99.3%로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용경험여부나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중이라는 노인의 비율이 전체의 48.2%였으며, 향후 이용하기를 원하는 노인들도 47.2%를 차지하였다.

〈표 4-40〉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단위: %)

구 분	인지율 ¹⁾	이용경험 여부 ²⁾			이용 희망율 ¹⁾
		경험없음	경험있음	이용중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90.7	87.5	8.7	3.9	22.1
노인복지회관	83.9	85.4	9.9	4.8	25.5
경로당(노인정)	99.3	51.8	15.4	32.8	47.2

주: 1) 본인응답자 3,02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2) 각 시설을 인지하고 있는 노인 대상,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우리 사회에서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 수는 미신고 시설을 합하여 총 55,50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7). 따라서 노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로당을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간주하고 그 이용실태와 그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 및 이용빈도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34.5%가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절반 정도인 48.0%가 주 6회 이상, 즉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54.6%로 동부의 24.9%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해 경로당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로당 이용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빈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 및 이용빈도가 높은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집단의 경우 이용률이 43.2%로 평균보다 높고, 주 6회 이상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비율도 54.1%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역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수준별 분류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경향은 경로당 이용빈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별 경로당 이용률의 경우에는 200~300만원 미만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률 및 이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갖는 집단은 경로당 이용률이 2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용자들의 53.2%가 주 6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경로당 이용률과 이용빈도는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제한이 없는 노인들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거동이 다소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지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을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41〉 노인의 일반특성에 따른 경로당 이용률 및 이용빈도

(단위: %)

구 분	경로당 이용률	경로당 이용빈도 ¹⁾				계	(명)
		주1회미만	주2-3회	주4-5회	주6회이상		
전체	34.5	18.1	21.3	12.6	48.0	100.0	(1,043)
지역							
동부	24.9	20.0	23.2	10.8	46.0	100.0	(510)
읍면부	54.6	16.2	19.5	14.3	49.9	100.0	(533)
성							
남자	34.4	19.3	24.0	13.0	43.7	100.0	(402)
여자	34.5	17.3	19.7	12.4	50.7	100.0	(641)
연령							
65-69세	26.2	20.7	25.4	10.6	43.4	100.0	(317)
70-74세	36.8	18.5	18.5	17.7	45.3	100.0	(332)
75세 이상	43.2	15.5	20.4	10.0	54.1	100.0	(394)
가구형태							
노인독신	34.8	16.5	20.1	14.3	49.1	100.0	(232)
노인부부	34.5	20.9	20.6	11.0	47.5	100.0	(373)
자녀동거	35.4	16.4	22.1	12.3	49.3	100.0	(388)
기타	27.8	17.3	26.8	19.5	36.4	100.0	(50)
교육수준							
글자모름	46.6	17.0	16.7	8.6	57.6	100.0	(250)
글자해독	43.2	17.4	21.4	11.3	49.9	100.0	(262)
초등학교	35.3	17.0	23.2	15.5	44.2	100.0	(388)
중학교	24.8	25.8	21.1	12.2	41.0	100.0	(74)
고등학교	17.0	24.6	24.7	13.2	37.6	100.0	(53)
전문대이상	8.8	11.6	38.1	26.1	24.2	100.0	(15)
가구소득(월평균)							
50만원 미만	38.8	17.9	17.8	14.0	50.3	100.0	(348)
50-100만원 미만	35.3	20.3	20.4	11.5	47.8	100.0	(276)
100-150만원 미만	33.1	17.1	24.8	10.2	47.9	100.0	(124)
150-200만원 미만	29.1	24.8	30.1	10.9	34.3	100.0	(74)
200-300만원 미만	35.3	16.8	22.8	14.4	46.0	100.0	(118)
300만원 이상	26.8	10.2	23.6	13.1	53.2	100.0	(1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3	17.5	22.0	12.4	48.1	100.0	(690)
제한 있음	37.0	19.0	20.1	13.0	47.9	100.0	(353)

주: 1) 총 3,029명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1,04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요컨대, 전체 노인 중 약 3명 중 1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일수록, 고연령·저학력 노인일수록 경로당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마을마다 존재하는 경로당이 일반적인 노인문화의 중심지이자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가 27.7%, '시간이 없어서'가 21.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12.3%, '몸이 불편해서' 1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동부의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9.4%로 읍·면부의 2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의한 구분에서도 같은 응답의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항목에 대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노인들은 10.7%가 응답한 것에 비해,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45.7%가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 경로당 이용의 차별화는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2〉 노인의 지역별 및 성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시간이 없어서	21.2	20.7	22.8	20.3	21.7
시설이 좋지 않아서	2.6	2.0	4.7	3.1	2.3
거리가 너무 멀어서	5.1	4.4	7.6	2.8	6.5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5	3.0	0.7	4.1	1.4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27.7	29.4	21.8	35.9	22.6
몸이 불편해서	11.3	9.8	16.4	6.4	14.3
가입비 또는 연(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	7.3	8.1	4.3	4.0	9.3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12.3	11.8	14.0	10.0	13.7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1.8	1.6	2.8	1.7	1.9
기타	8.3	9.3	5.0	11.7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83)	(1,541)	(442)	(767)	(1,216)

〈표 4-43〉 노인의 교육수준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글자 모름	글자 해독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전문대 이상
시설이 좋지 않아서	2.6	1.7	3.0	3.0	2.0	3.7	1.0
거리가 너무 멀어서	5.1	9.1	7.1	4.6	4.3	3.0	0.4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5	1.1	1.0	1.7	2.4	4.8	7.8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27.7	10.7	23.3	28.0	31.7	37.0	45.7
몸이 불편해서	11.3	21.7	17.1	10.2	6.8	4.5	1.6
가입비 또는 연(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	7.3	19.1	10.8	5.8	4.0	0.7	0.0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12.3	16.5	16.1	11.0	9.2	12.1	7.2
경로당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1.8	2.4	2.2	2.3	1.3	1.1	0.0
기타	8.3	2.9	3.1	8.0	10.5	15.7	1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83)	(286)	(346)	(708)	(226)	(258)	(159)

다. 노인의 경로당 이용 만족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 7.0%, '만족' 60.7%로 만족하는 비율이 67.7%나 되었다. 지역별 만족도는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성별로는 여성의 만족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만족도는 65-69세의 연령집단의 만족도가 70-74세, 7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형태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노인부부나 자녀동거 유형에 비해 노인독신 유형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신 유형의 경우, '매우 만족'이 8.4%, '만족'이 68.3%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경로당 이용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자를 모르거나, 글자해독 등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 즉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모두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에서는 '불만족' 24.2%, '매우 불만족' 1.2%로 네 명 중 한 명이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만족도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소득에 따른 분류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 또는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의 합이 70%를 넘는 것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보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7.0	60.7	22.0	9.6	0.7	100.0	(1,043)
지역							
동부	7.5	59.4	22.8	9.6	0.7	100.0	(510)
읍면부	6.4	62.0	21.2	9.6	0.8	100.0	(533)
성							
남자	7.5	54.6	23.6	13.3	1.1	100.0	(402)
여자	6.6	64.6	21.0	7.3	0.5	100.0	(641)
연령							
65-69세	4.9	57.4	26.0	10.9	0.8	100.0	(317)
70-74세	9.1	62.8	18.4	9.4	0.3	100.0	(332)
75세 이상	6.7	61.7	21.8	8.7	1.1	100.0	(394)
가구형태							
노인독신	8.4	68.3	14.8	8.2	0.4	100.0	(232)
노인부부	7.3	58.9	22.9	10.1	0.9	100.0	(373)
자녀동거	6.3	58.3	24.6	9.8	1.0	100.0	(388)
기타	2.7	58.4	28.3	10.6	-	100.0	(50)
교육수준							
글자모름	5.5	74.1	14.8	5.4	0.3	100.0	(250)
글자해독	7.6	60.2	24.2	8.0	-	100.0	(262)
초등학교	8.2	55.3	25.1	10.8	0.6	100.0	(388)
중학교	4.6	56.7	22.4	11.9	4.5	100.0	(74)
고등학교	5.6	44.8	24.3	24.2	1.2	100.0	(53)
전문대이상	3.8	62.9	13.4	14.3	5.6	100.0	(15)
가구소득(월평균)							
50만원 미만	6.1	65.0	20.2	8.7	-	100.0	(348)
50-100만원 미만	10.6	59.7	20.0	8.6	1.2	100.0	(276)
100-150만원 미만	6.5	61.1	20.4	10.1	1.9	100.0	(124)
150-200만원 미만	3.3	58.1	23.0	12.8	2.8	100.0	(74)
200-300만원 미만	5.8	54.3	27.5	12.4	-	100.0	(118)
300만원 이상	4.6	58.2	28.2	9.1	-	100.0	(1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7.6	58.9	23.8	8.6	1.1	100.0	(690)
제한 있음	5.8	64.3	18.4	11.5	-	100.0	(353)

기능상태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행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경로당 이용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설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은 몸이 다소 불편한 노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여가시설인 것으로 여겨진다.

라. 노인의 경로당 이용 만족하는 이유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노인들의 75.7%가 ‘비슷한 노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라고 대답했으며, 12.9%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라고 답했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는 응답에 대해 읍·면부에 비해 동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노인의 지역별·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시설이 좋아서(공간, 구조, 설비 등)	2.4	2.0	2.7	3.2	1.9
프로그램이 좋아서(야유회, 장구 등)	2.2	1.5	2.7	2.2	2.1
거리가 가까워서	2.2	1.5	2.6	2.2	2.0
비슷한 노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75.7	75.2	76.2	78.0	74.5
식사를 제공해 줌으로	4.9	5.5	4.2	3.6	5.6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12.9	14.4	11.6	10.9	1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05)	(341)	(364)	(250)	(456)

주: 분석대상 3,029명 중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706명을 대상, 무응답 1명 제외.

교육수준에 따라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비교적 사례수가 적은 '전문대 이상'을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슷한 노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라는 응답과 '시설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식사를 제공해 줌으로'라는 응답의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노인들은 '비슷한 노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라는 사교의 측면에서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설,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소일거리의 측면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4-46〉 노인의 교육수준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글자 모름	글자 해독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 이상
시설이 좋아서(공간, 구조, 설비 등)	2.4	0.7	2.7	3.1	3.3	2.7	7.0
프로그램이 좋아서(야유회, 장구 등)	2.2	1.7	1.6	2.3	2.5	4.4	3.8
거리가 가까워서	2.2	2.4	1.2	2.0	4.7	2.6	-
비슷한 노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75.7	73.2	75.4	77.5	81.1	77.9	54.7
식사를 제공해 줌으로	4.9	5.5	4.6	4.1	4.7	3.3	20.2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12.9	16.5	14.5	11.0	3.7	9.1	1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05)	(199)	(177)	(247)	(46)	(26)	(10)

주: 분석대상 3,029명 중 경로당 이용 만족하는 706명을 대상, 무응답 1명 제외.

마. 노인의 경로당 이용 만족하지 않는 이유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노인들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 보았던 노인의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와는 다르게 그 응답이 다

양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 45.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시설이 좋지 않아서' 24.0%,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14.7% '가입비 연회비가 부담스러워서' 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항목에 대해 동부 54.1%로 높은 반면, 읍·면부는 3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시설이 좋지 않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가입비, 연회비가 부담스러워서'라는 대답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노인구성이 경로당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56.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라는 응답도 9.6%로 남성의 1.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시설이 좋지 않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항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노인의 지역별·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시설이 좋지 않아서	24.0	21.0	26.8	30.4	16.6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14.7	12.5	16.7	20.1	8.4
거리가 너무 멀어서	5.0	5.3	4.7	1.0	9.6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45.9	54.1	38.2	37.2	56.0
가입비, 연(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	6.3	2.4	9.9	5.8	6.8
기타	4.1	4.7	3.7	5.4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8)	(52)	(56)	(58)	(50)

주: 분석대상 3,029명 중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108명 대상.

〈표 4-48〉 노인의 교육수준별 경로당 이용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글자 모름	글자 해독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 이상
시설이 좋지 않아서	24.0	4.3	39.2	21.6	34.0	20.4	21.1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14.7	5.4	6.7	22.8	5.9	21.7	-
거리가 너무 멀어서	5.0	29.1	3.4	1.3	-	-	-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45.9	42.6	44.3	45.1	47.6	45.8	79.0
가입비, 연(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	6.3	14.2	3.1	7.6	5.9	-	-
기타	4.1	4.3	3.4	1.6	6.7	12.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8)	(14)	(21)	(44)	(12)	(13)	(3)

주: 분석대상 3,029명 중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108명 대상.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각 분류에 따른 사례수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교육수준에 따른 경로당 이용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1.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결과 제시

노인의 여러 가지 사회참여 형태들간의 관계 및 우리나라 노인의 일반적인 사회참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2004년도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①직업, ②종교, ③문화, ④운동, ⑤사교, ⑥정치, ⑦교육, ⑧자원봉사, ⑨경로당 등 모두 9가지 형태의 사회참여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9가지 사회참여 형태에 대해 k 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집별 사회참여 형태의 평균치는 아래 <표 4-4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첫 번째 군집에 속하는 사례는 398명이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평균=1.0). 또한 타 군집에 비해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교육 등 사회참여의 여러 영역에 걸쳐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군집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다른 영역의 참여도 활발한 군집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의 경우 높은 종교활동 참여(평균=0.96)율을 보이는 집단이며 총 702명이 이 군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미약한 수준의 직업활동 및 교육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조한 사회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원봉사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경로당과 같은 일상 사교적 사회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군집의 경우 직업활동에의 참여가 타 군집과 비교해 유독 높은 군집(평균=0.72)으로서 총 546명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 이외에 사교활동(평균=0.68)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직업과 사교 이외의 다른 사회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로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로당 활동을 제외하면 뚜렷이 주목할 만한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총 1,082명, 즉 전체 사례의 약 40%가 이 군집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네 번째 군집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49〉 K 평균 군집분석 결과

구분	1	2	3	4
직업	0.28	0.17	0.72	0.45
종교	0.63	0.96	0.17	0.42
문화	0.03	0.01	0.02	0.00
운동	0.07	0.02	0.07	0.03
사교	0.55	0.21	0.68	0.31
정치	0.08	0.01	0.03	0.01
교육	0.28	0.18	0.05	0.10
자원봉사	1.00	0.00	0.03	0.00
경로당	0.31	0.00	0.00	1.00
N(=2728)	434(16%)	754(27.9%)	550(20.3%)	969(35.8%)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

이상과 같은 각 군집의 사회참여 양상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각 군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겠다. 먼저, 첫 번째 군집은 전반적으로 타 군집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집단인데, 특히 첫 번째 군집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첫 번째 군집은 전반적인 사회참여에 있어 적극적이면서도 특별히 자원봉사활동에 집중되는 ‘자원봉사중심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은 종교활동에 집중하며 다른 영역의 사회참여율은 저조한 집단이므로 ‘종교중심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은 직업활동 및 사교활동 참여율이 높는데, 특히 타 군집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업중심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경로당 참여율이 높으면서 가장 다수가 속하기도 하는 마지막 군집의 경우 '경로당중심형'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각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0>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았을 때 자원봉사중심형은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나머지 세 군집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종교중심형과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경로당중심형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직업중심형이었다. 가구의 평균소득은 자원봉사중심형(평균 103.37만원)이 가장 높고 직업중심형(96.91만원) > 종교중심형(77.77만원) > 경로당중심형(69.98만원)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개인의 용돈의 경우 경로당중심형(평균 58.14만원)이 가장 높고 종교중심형(53.11만원) > 자원봉사중심형(48.16만원) > 직업중심형(40.52만원)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참여 유형에 따른 가구 소득수준과 노인개인의 용돈수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계층(퇴직 이전 최장 종사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네 가지 사회참여 유형 모두에서 생산직 종사자가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나 상대적으로 자원봉사중심형과 직업중심형에서 전문직이상의 고위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분포 역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은 자원봉사중심형과 직업중심형임을 보여주고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였다.

〈표 4-50〉 사회참여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

(단위: 명, %)

		자원봉사 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 중심형
성별	남	211(48.6)	163(21.6)	351(63.8)	335(34.6)
	여	223(51.4)	591(78.4)	199(36.2)	634(65.4)
연령(단위:세)		71	73	69	74
가구소득(단위:원)		103.37	77.77	96.91	69.98
노인용돈(단위:원)		48.16	53.11	40.52	58.14
최장기직업	전문직이상	115(29.6)	89(13.8)	129(24.4)	42(4.6)
	사무서비스직	97(25.0)	145(22.6)	95(18.0)	73(8.0)
	생산직	176(45.4)	409(63.6)	304(57.6)	797(87.4)
교육수준	무학	53(12.2)	322(42.7)	107(19.5)	530(54.7)
	초졸	165(38.0)	258(34.2)	203(37.0)	346(35.7)
	중졸	75(17.3)	68(9.0)	72(13.1)	54(5.6)
	고졸	83(19.1)	68(9.0)	98(17.9)	35(3.6)
	전문대졸	9(2.1)	6(0.8)	3(0.6)	2(0.2)
	대졸	45(10.4)	26(3.5)	59(10.8)	2(0.2)
	대학원	4(0.9)	6(0.8)	6(1.1)	0(0)
	지역	등	336(77.2)	600(79.6)	403(73.4)
	읍면	99(22.8)	154(20.4)	146(26.6)	496(51.2)
자녀동거	동거안함	227(59.1)	482(63.9)	358(65.2)	588(60.7)
	동거	157(40.9)	272(36.1)	191(34.8)	381(39.3)
주관적 건강	매우나쁨	28(6.6)	92(12.7)	36(6.9)	109(11.8)
	약간나쁨	81(19.2)	225(31.1)	102(19.5)	261(28.2)
	보통	107(25.4)	215(29.7)	167(32.0)	262(28.4)
	약간 좋음	145(34.4)	148(20.5)	164(31.4)	239(25.9)
	매우 좋음	61(14.4)	43(6.0)	53(10.2)	53(5.7)
노인이미지: 정정	그렇지 않다	214(50.8)	393(54.4)	281(52.1)	461(50.1)
	그렇다	207(49.2)	329(45.6)	258(47.9)	459(49.9)
노인이미지: 현명	그렇지 않다	193(45.8)	335(47.0)	234(44.1)	413(46.2)
	그렇다	228(54.2)	378(53.0)	297(55.9)	481(53.8)
노인이미지: 낙천적	그렇지 않다	190(45.8)	393(55.2)	270(50.8)	480(52.9)
	그렇다	225(54.2)	319(44.8)	262(49.2)	427(47.1)
노인이미지: 경제적독립	그렇지 않다	221(52.6)	489(68.3)	229(42.8)	554(60.5)
	그렇다	199(47.4)	227(31.7)	306(57.2)	361(39.5)
삶의만족도	매우만족	38(9.0)	19(2.7)	22(4.1)	22(2.4)
	만족하는편	214(51.0)	260(36.4)	237(44.3)	363(39.5)
	그저그렇다	109(26.0)	252(35.2)	162(30.3)	334(36.3)
	만족않는편	48(11.4)	135(18.9)	89(16.6)	157(17.1)
	전혀만족안함	11(2.6)	49(6.8)	25(4.7)	43(4.7)

지역의 경우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의 경우 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더 많이 분포된 반면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도시와 읍·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대등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의 경우 네 유형 모두에서 동거하지 않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및 노인에 대한 이미지의 분포는 각 유형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중심형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노인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유형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3절 노인의 사회참여 영향 요인의 분석

한편, 기술통계 결과가 사회참여 각 군집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첫째, 각 군집에 해당하는 사례수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술통계 결과치가 보여주는 정보로는 그 경중을 가늠하기 어렵다. 둘째, 노인이 어떤 사회참여 유형에 속하는지는 노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이런 측면에서 각 사회참여 유형은 상호독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변수가 노인이 특정한 사회참여 유형을 선택하도록 좌우하는 변인인지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각 사회참여 유형의 결정변인을 나머지 세 집단과 비교·고찰하기 위해 각 사회참여 군집을 기준 집단으로 총 4개의 다항로짓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이하에 제시된 <표 4-51>, <표 4-52>, <표 4-53>, <표 4-54>와 같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선택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구조 및 제도와 상호작용을 하며 가치관, 지향, 심리적 요소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각 사회참여 군집을 분석함에 있어 이같은 복잡다단한 측면이 주는 현실적 함의를 끌어내고, 이를 향후 정책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각 사회참여 유형별 양적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를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원봉사중심형

가. 양적 분석 결과

'자원봉사중심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집단에 대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1>과 같다.

〈표 4-51〉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분석(자원봉사중심형 기준)

구 분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			비참여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04	0.014	1.004	-0.105**	0.016	0.900	0.042**	0.014	1.043	0.044**	0.015	1.045
성(준거:여성)남성	-0.695**	0.188	0.499	0.778**	0.186	2.177	0.528**	0.181	1.696	0.375	0.213	1.455
교육년수	-0.096**	0.020	0.908	-0.096**	0.021	0.908	-0.168**	0.021	0.846	-0.112**	0.023	0.894
혼인상태(준거:무)유	-0.168	0.173	0.845	0.267	0.190	1.307	-0.203	0.174	0.816	-0.225	0.201	0.798
노후준비(준거:무)유	-0.304	0.167	0.738	-0.339*	0.163	0.712	-0.290	0.164	0.748	-1.049**	0.218	0.350
지역(준거:읍면부)동부	0.385*	0.166	1.469	0.009	0.167	1.009	-0.884**	0.153	0.413	0.205	0.183	1.227
자녀동거(준거:동거)비동거	0.110	0.158	1.116	0.104	0.157	1.110	-0.013	0.157	0.987	0.027	0.183	1.028
건강상태(IADL)	0.045	0.044	1.046	-0.082	0.064	0.921	-0.063	0.048	0.939	0.173**	0.042	1.189
용돈	-0.013*	0.005	0.988	0.004	0.003	1.004	-0.011*	0.006	0.989	0.001	0.003	1.001
가구소득	0.000	0.001	1.000	0.001	0.001	1.001	0.001	0.001	1.001	-0.003	0.002	0.997
직종(준거:생산)전문직이상	0.440	0.238	1.553	-0.090	0.226	0.914	-1.250**	0.271	0.287	-0.321	0.283	0.725
사무·서비스직	-0.249	0.175	0.779	-0.343	0.187	0.710	-1.224**	0.194	0.294	-0.748**	0.215	0.473
상수	0.669	1.087		8.596**	1.317		0.286	1.088		-3.919**	1.167	

$\chi^2 = 1182.595$, $df = 48$, $N = 2,752$

주: * $p < 0.05$, ** $p < 0.01$

먼저, 자원봉사중심형의 경우 연령, 성별, 교육년수, 노후준비여부, 지역, 노인개인의 용돈, 이전 종사 직종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 사회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보다 경로당중심형 또는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의 경우 남성일수록 종교중심형보다는 자원봉사중심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일수록 직업중심형 혹은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년수 변수의 경우, 교육년수가 길수록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 비참여형 보다 자원봉사중심형 활동유형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노후준비 여부 변수는 직업중심형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즉 노후준비를 했을수록 직업중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비참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종교중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모든 경우에 있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노인개인의 용돈은 사회참여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종교중심형 및 경로당중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직업중심형과 비교했을 때 용돈이 적을수록 직업중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직종은 경로당중심형·비참여형과 자원봉사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전 종사 직종이 생산직인 경우보다 전문직 이상의 고위직이거나 사무직·서비스직 이상의 화이트칼라 직종일 경우 경로당중심형 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전 종사직종이 생산직인 경우보다 사무·서비스직일수록 비참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비참여형에 속하기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건강상태 변수가 비참여형과 자원봉사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승산비(Exp(B))를 해석해 보면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중심형 사회참여에 비해 타 유형의 사회참여에의 소속여부에 미치는 승산효과는 작거나 부적인 가운데 성별변수가 직업중심형 사회참여에 미치는 승산효과는 2.177배, 그리고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에 미치는 승산효과는 1.696배로서, 즉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자원봉사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을 117% 증가시키며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은 약 7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심층면접 결과 해석

앞서 양적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 자원봉사중심형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한 가지 분야에서의 사회참여가 아니라 여러분야에 걸친 사회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에게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자신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노년기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참여의 다른 형태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개발에 치중되거나(ex. 직업, 교육, 운동, 문화, 종교) 친목 위주의 사회적 관계형성(ex. 사교, 경로당)이 주를 이루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적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에 의해서도 왜 이 유형에 속하는 노인들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노인 자원봉사의 상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노인은 주로 다양한 네트워크의 '끌림'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유도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혹은 네트워크의 귀결점이 된다.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또 역송회라고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역송회, 바르기살기협의회, 라이온스 클럽.. 지금 임업협동조합이라고 산림조합의 이사로도 나가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만 해가지고는 모임 단체가 잘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산악회장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대기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도 가입이 되고, 또 좁은 사회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입이 돼서 서로 융화적으로 살아야지.. 그 자기 하나만 하고 안해 버린다면 말이 안 되요...다 얽혀있습니다.. (면접자 11).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서 맹인박물관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박물관에 온 시각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박물관 인도를 해주는 것이예요. 가만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도 ○○○ 장로와 함께 맹인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처럼 어려운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목욕을 돕는 목욕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쪽 이어지게 되었어요. 자원봉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차츰 익숙해지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연결시켜주는 곳을 찾아가지고 독거노인들 목욕도 시켰지. 그 답에 인자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정폭력지킴이도 나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꾀짜가 아니라 식비하고 차비하고 주더라고.. 약간.. 그래서 인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봉사도 시작했어요. 노인복지회관 지킴이 봉사는 여기 복지회관에 왔을 때, ○○ 복지회관에서...친구들이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이것도

선착순이니까...칠천명 팔천명 그 중에서 2-30명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것이죠. 한 단체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정보가 들어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또 해볼라나? 그러면 생각해봤다가 할 수 있겠다, 하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해보면 알어. 한 가지 하면 두 가지 하고 싶고, 두 가지 하면 세 가지 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하고 싶고...(면접자 6).

즉, 처음에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아무런 상과 계획이 없었더라도 교회, 친구 등의 친목모임, 직장 등 노인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한 번의 경험은 또다른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로 연결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 사회참여 유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 그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상에 있어서는 저마다 차이를 보였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상은 크게 소극적 자원봉사와 적극적 자원봉사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소극적 자원봉사의 경우,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에서부터 공원의 휴지를 줍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란 다름아닌 일상생활의 소소한 기여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다수의 노인들은 소극적 자원봉사의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달리 막상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자원봉사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 그 근거에 있는 네트워크 특성은 공식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보다 비공식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예컨대 친목모임 등)에 근거하는 특징을 보인다.

봉사라는 건 아무데 가서 담배꽂초를 하나 줍는다든지, 어려운 사람 부축해주는거 이런거 다 봉사 아닙니까? 가차운데서 찾는거 내가 아는데... 우리 친목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나오면 공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허다 못해... 담배꽂초를 줍는 것도 환경에 관한 좋은 일 아니예요? (면접자 2).

반면 적극적 자원봉사의 경우, 경륜을 가진 노인들이 앞장서서 사회의 부조리 해소 및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인식하며 이같은 시각을 가진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들이 노후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데에는 이전 종교나 퇴직 이전 종사 직종에서 기인하는 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학대 지킴이, 은빛자원봉사단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면접자는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을 퇴직전 종사 직종, 즉 공무원 생활과 복지시설에 종사한 경험에서부터 찾고 있다.

도청에 근무를 15년간 했고, 그 뒤에 살기가 좀 저기해가지고.. 구차해가지고 또 개인택시를 좀 했었어요. 개인택시를 하던 중에 ○○양로원 취업이 되가지고 거기 원장까지.. 양로원에 있을 때, 자원해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라든지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가치 있는 생활을 한다.. 이런 감을 느꼈고.. 나도 이 직장을 나가면은 뭔가가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거기에서 가지게 되었어(면접자 6).

공무원 30년간 공직생활 하다가, 여기서 딱 군도 안가고, 그때 국가직이기 때문에 발령이 딱 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성격상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윗분들이 딱 잡고 안 놔준 것이죠. 동군에서 퇴직을 해서, 이 고장의 299개의 리·동이 있는데, 내 발길 손길 안 닿은 데가 없습니다. 저는 공직을 하면서도 봉사단체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라이온스도 했고, 농

촌지도자 연합회라고 저게 중앙에까지 내가 감사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그 뭐.. 단체 책임은 안했지만, 여기저기.. 결국은 여가선용이지, 내가 직장의 일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본성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퇴직 후에도 계속 그런 봉사단체에.. 지금.. (면접자 12).

즉,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제도적 토대가 부재한 현실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노인의 경우 이전 종사 직종에서의 경험과 같이 일반 노인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부분적인 이유도 설명된다. 즉, 현재 노인여성은 젊은 시기에 일반적으로 사회진출보다 가사노동에 주력했으며 이같은 경험의 제한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에 있어 더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적극적 사회참여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다수가 자금(돈)을 꼽았다. 여기서 자금이란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소소한 비용(교통비, 식사비) 뿐만 아니라 기부 형식의 보다 적극적인 자금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비롯한 적극적 사회참여가 상당부분 사회적 지위 확보의 욕구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활동은 교회에서 내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걸 많이 했다면..내가 교회에서 남전도회 회장을 한 사람인데, ○○교도소라고 알런지 모르겠어. ○○교도소 거기 방문을 가야하는데.. 그때는 회장이 돈을 먼저 많이 내놔야 돼요. 일을 할려면..남전도회 회원들의 회비가 있는데 회비가 너무 작으니까 그걸로는 안되니까. 거기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생일잔치하고 그러는데 음료수도 사가야 하고 타올도 하나 줘야 하고 뭇도 줘야하고 뭇도 줘야하고 그래서..거기 가게 되면은 내가 먼저 20만원이고 얼마 내놓고 해야 딱 임원들도 따라서 내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차량왕래는 교회차로 가니까 큰 돈 드는 것 아니고, 휘발유도 교회에

서 대주고 그러기 때문에 몇 번씩 갔다 올 수 있지. 그렇게 갈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갔다 오면 전부다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아주 은혜 받고 내가 큰 무슨 일이나 하고 온 것 마냥 그런 만족감들을 느끼는 것 볼 때 자꾸만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번 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건 봉사성이고 하니까 부담이 안됐어요. 또 솔직히 말해서 으스대는 기분도 생겼고, 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먼저.. 나는 또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 수표 10만원짜리는 오른쪽에 따로 넣고 왼쪽에는 만원짜리를 넣고 이렇게 따로 넣고 다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기분 날 때 10만원짜리 수표 딱 내놓으면 만원짜리 10개랑 기분이 달라요(면접자 3).

저는 그 산악회장도 했고, 라이온스회장도 했고 그런데.. 회장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좀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돈을 너무 아끼면 회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은 남을 위해서, 우리 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낌없이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가장 걸림들은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가 자금이 없으면 회장 역할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모아 놓고 자기가 쓰면서 벌면서 해야 된다. 또 나이가 들었다 해서 사회 팽개치지 말고 모든 일에 술선수범해서 매치고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일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해야 해요. 또 그러고 회장이라 해서 회원들한테 뺄겨 놓으면 안됩니다. 자기가 술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하고 실행해야하고 옮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노인이 자격이 없어(면접자 11).

이러한 점은 양적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직업중심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참여 유형, 즉 경로당중심형 및 종교중심형과 비교했을 때 자원봉사중심형이 노인개인의 용돈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종교중심형

<표 4-49>에 제시된 군집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교중심형은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밖의 사회참여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유형이다. 즉, 앞서 살펴본 적극적 사회참여형의 상당수가 종교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사교활동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종교중심형은 신앙생활에 몰두하며 종교적 단절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같은 사회참여 형태를 결정짓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양적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보완적 해석의 결과는 이하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 양적 분석 결과

<표 4-52>은 종교중심형 집단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회참여 유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지분분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노인의 용돈, 이전 종사 직종 등이 종교중심형과 나머지 유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중심형보다는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종교중심형보다 경로당중심형 또는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특히 성별은 종교중심형과 나머지 유형 모두를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여성일 경우 나머지 네 유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라는 변수가 종교중심형의 가장 중요한 결정변인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중심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표 4-52〉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분석(종교중심형 기준)

	자원봉사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			비참여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04	0.014	0.996	-0.109**	0.015	0.897	0.039**	0.011	1.039	0.040**	0.013	1.041
성(준거:여성)남성	0.695**	0.188	2.003	1.472**	0.175	4.360	1.223**	0.165	3.397	1.070**	0.198	2.915
교육년수	0.096**	0.020	1.101	0.000	0.019	1.000	-0.072**	0.018	0.931	-0.016	0.210	0.984
혼인상태(준거:무)유	0.168	0.173	1.183	0.436**	0.165	1.546	-0.035	0.140	0.966	-0.057	0.172	0.835
노후준비(준거:무)유	0.304	0.167	1.356	-0.035	0.158	0.966	0.014	0.151	1.014	-0.745**	0.209	0.945
지역(준거:읍면부)동부	-0.385*	0.166	0.681	-0.376*	0.153	0.687	-1.268**	0.126	0.281	-0.180	0.161	0.835
자녀동거(준거:동거)비동거	-0.110	0.158	0.896	-0.006	0.148	0.994	-0.122	0.135	0.885	-0.082	0.164	0.921
건강상태(IADL)	-0.045	0.044	0.956	-0.128*	0.056	0.880	-0.109**	0.034	0.897	0.128**	0.026	1.137
용돈	0.013*	0.005	1.013	0.017*	0.005	1.017	0.002	0.006	1.002	0.013*	0.005	1.013
가구소득	0.000	0.001	1.000	0.002	0.001	1.002	0.001	0.001	1.001	-0.002	0.001	0.998
직종(준거:생산)전문직이상	-0.440	0.238	0.644	-0.530*	0.226	0.589	-1.690**	0.265	0.185	-0.762**	0.273	0.467
사무·서비스직	0.249	0.175	1.283	-0.094	0.173	0.911	-0.975**	0.171	0.377	-0.499**	0.192	0.607
상수	-0.669	1.087		7.926**	1.212		-0.383	0.874		-4.589**	0.978	

$$x^2 = 1182.595, df = 48, N = 2,752$$

주 : * p<0.05, ** p<0.01

혼인상태는 종교중심형과 직업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는데, 배우자가 없을수록 직업중심형보다 종교중심형일 확률이 높다. 노후준비 여부는 세 가지 사회참여 유형과 종교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지만 노후준비를 했을수록 비참여형 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나머지 세 유형의 사회참여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농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한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직업중심형 혹은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보다 종교중심형 사회참여의 확률이 높으며 비사회참여보다 종교중심형 사회참여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용돈은 경로당중심형과 종교중심형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인 개인의 용돈이 적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 직업중심형 및 비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종사직종의 경우 전문직 이상의 고위직에 종사했을수록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 또는 비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 사회참여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으며 사무·서비스직에 종사했을수록 경로당중심형 혹은 비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승산비를 해석해 보면 종교중심형에 비해 타 사회참여에 속할 승산을 증가시키는 독립변수는 성별, 혼인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 변수는 종교중심형에 비해 타 사회참여 유형 모두에 대한 승산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종교중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은 2.003배(약 100%) 증가하며 직업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은 약 4.36배(336%), 그리고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은 3.397배(약 240%) 증가한다. 또한 사회참여를 하지 않게 될 승산은

2.915배(192%)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변수가 종교중심형과 나머지 사회참여 유형을 구분짓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교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종교중심형 사회참여에 비해 기타 유형의 사회참여 혹은 비사회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혼인상태의 경우 종교중심형 대비 타 유형에 속할 승산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을 경우 종교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을 약 1.546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심층면접 결과 해석

노년기의 종교활동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왜 종교가 이처럼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양하다. 먼저, 건강행위가설(health and behaviors hypothesis)은 종교가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컨대 음주, 흡연, 약물, 도박 등)과의 접촉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으로 삶의 질이 증가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인지적일치가설(cognitive coherence hypothesis)은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위기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정신적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통합가설(social cohesiveness hypothesis)은 사회적 그물망이 대폭 축소되는 시기인 노년기의 종교활동은 노인들에게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거나 또 종교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노인

의 현실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다. 즉, 종교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보다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연결망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김수정, 2006 재인용).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의 결과, 종교가 노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교에 접근하게 된 경로도 다르고 현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종교를 통해 노후에 단절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가설과 일치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원래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종교를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예를 들어 직장, 사교 등)가 노인이 되어감에 따라 점점 단절되며 종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활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특히 목적의식적인 네트워크 추구의 행위로서 종교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버대학에 가요...할머니들이 그냥 각지에서 오는데 한 200명가량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웃고.. 할머니들이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 하고,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그걸 꼭 타고 올라오셔서가지고, 기어서 2층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꼭 기어서 올라와서 여기를 참석하냐고..'물었더니 화요일날만 그 할머니가 꼭 기다린대요. 왜냐면 여기 오면 이야기도 하고 벗도 생겨서 재밌게 놀고, 점심도 맛있는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해주셔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집으로 가면 독수공방 홀로 있대요. 외롭게.. 할머니들 물어보면, 그 외로운 거.. 외로운 것이 켈로 서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다 돈 벌고 나가고 이러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가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픈데도 조금 가시고 덜 아프고 또 집에 와서

누으면 또 아프고 또 나가서 할머니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면 너무 재밌어요. 한번은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교회만 오냐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XX교회를 가고, 화요일 날은 XX교회를 오고, 수요일 날은 ○○병원 밑에 무슨 교회냐.. 그 교회를 가신데요.. 일주일이 돌아오면 딱 짜져있어. 그 할머니들은.. (면접자 7).

이렇듯 노인이 된 후 네트워크 추구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에 접근하게 된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참여 유형에 비해 네트워크 및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양적 분석의 결과 여자 노인의 경우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양적 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전 종사직종이 전문직 이상의 고위직종일 수록 경로당중심형 혹은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종교중심형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상반된 면모를 반증하는 것이다. 즉, 현존하는 노후 사회참여 인프라에 대한 불만족의 요소가 종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 인프라에 대한 불만족의 요소란 핵심적으로 노인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낙인을 의미하는데(경로당은 '수준이 낮다'), 이처럼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에 비해 종교는 초계층적이며 무엇보다 세대통합적인 특징을 가져서, 소위 '수준 높은' 노인들이 보다 젊은 계층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자기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동아리별로 구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임무를 해요. 성당자체에서 짜요. 성당에 무슨 행사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팀별로 짜서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성당봉사활동을 참 잘해요.... 성당에 가면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게 좋지.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릴라고 애를 써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야 새로운 것도 얻어 듣고 말 한마디라도 듣지.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말 한마디라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면접자 16).

3. 직업중심형

가. 양적 분석 결과

직업중심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회참여 유형에 대해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53>과 같다. 직업중심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타 유형과 구별되는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노후준비, 거주지역, 건강상태, 노인의 용돈, 이전 종사직종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연령이 낮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경로당중심형 그리고 비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연령이 직업중심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성일수록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비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배우자가 있을수록 종교중심형, 경로당중심형, 또는 비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일수록 종교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도시일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직업중심형보다 종교중심형 및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개인의 용돈이 많을수록 종교중심형 또는 경로당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역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노인 개인의 용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가구소득 변수가 비참여형과 직업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종사직종이 고위전문직인 노인에 비해 생산직 종사자 일

수록 종교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직업중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직 종사자에 비해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일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승산효과는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전 종사직종이 전문직 이상이었던 경우, 직업중심형에 비해 종교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을 약 1.699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이전 직업계층이 전문직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노후에 직업 활동을 택하기 보다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심층면접 결과 해석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들 중 다수는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업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우, 양적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어야 하며, 직업활동이 주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과, 재미, 소일거리 등을 직업활동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동시에, 직업활동에 적극적인 노인들은 '떳떳하고 싶은' 욕구,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표현했으며, 몸이 닿는 한에서 일(노동)을 계속하는 것이 '떳떳한' 것이라는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4-53〉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분석(직업중심형 기준)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경로당중심형			비참여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연령	0.105**	0.016	1.111	0.109**	0.015	1.115	0.148**	0.015	1.159	0.150**	0.016	1.161
성(준거:여성)남성	-0.778**	0.186	0.459	-1.472**	0.175	0.229	-0.250	0.162	0.779	-0.403*	0.198	0.668
교육년수	0.096**	0.021	1.101	0.000	0.019	1.000	-0.072**	0.019	0.931	-0.016	0.022	0.984
혼인상태(준거:무)유	-0.267	0.190	0.765	-0.436**	0.165	0.647	-0.470**	0.163	0.625	-0.492*	0.193	0.611
노후준비(준거:무)유	0.339*	0.163	1.404	0.035	0.158	1.035	0.049	0.149	1.05	-0.710**	0.209	0.492
지역(준거:읍면부)동부	-0.009	0.167	0.991	0.376*	0.153	1.456	-0.893**	0.136	0.41	0.196	0.171	1.216
자녀동거(준거:동거)비동거	-0.104	0.157	0.901	0.006	0.148	1.006	-0.117	0.143	0.89	-0.077	0.173	0.926
건강상태(IADL)	0.082	0.064	1.086	0.128*	0.056	1.136	0.019	0.058	1.019	0.256**	0.054	1.291
용돈	-0.004	0.003	0.996	-0.017**	0.005	0.983	-0.015**	0.005	0.985	-0.004	0.002	0.996
가구소득	-0.001	0.001	0.999	-0.002	0.001	0.998	0.000	0.001	1.0	-0.004**	0.001	0.996
직종(준거:생산)전문직이상	0.090	0.226	1.094	0.530*	0.226	1.699	-1.160**	0.258	0.314	-0.232	0.272	0.793
사무·서비스직	0.343	0.187	1.409	0.094	0.173	1.098	-0.882**	0.191	0.414	-0.406	0.213	0.667
상수	-8.596**	1.317		-7.926**	1.212		-8.309**	1.192		-12.515**	1.292	

$\chi^2 = 1182.595, df = 48, N = 2,752$

주: * p<0.05, ** p<0.01

그래도 그냥 재밌어. 내가 이거 나가서 또 벌어서 쓰고 그냥 하루하루 나가면 여러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집에서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나와. 일 년에 하루도 안 놀아. 그래서 설날도 나오고 그래. 맘은 좀 괴롭고 그런데.. 괴로울 것도 없어. 아들 셋 딸 하나니까 떳떳해...(중략)...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돈도 돈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그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나아. 건강을 위해서. 일 안하고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은 나는 정신상태가 나쁘다는 거야. 놀고 남한테 의지하고 이 세상에 공것이 요만큼도 없는 거여. 내가 베풀어야지.. 안 돼. 그런 맘을 먹으면... 나쁜 사람들이야. 남에게 의지하고 남한테 쉽게 벌리고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내가 노력해서 남 도와주고 노력해서 벌어야지 아무한테도 의지하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 그냥 나쁘다는 걸로 놀고 그냥 남한테 피해주고 나쁜거야. 사람은 떳떳한 생활을 해야 돼. 떳떳한 생활을 해야지 요만큼도 나쁜 것 하면 안 돼. 떳떳하게 돈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면접자 4).

난 돈이 안 벌리는건 안혀. 10원이라도 벌어야되. 절대 갖고 들어오는거.. 병 하나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갖고 들어온 것 하고 잡어. 왜냐면 내가 돈이 필요하거든.. 나는 벌여주는 사람이 없는 게 내가 벌어야 한게. 어디도 고장나면 돈 들어 고쳐야하고, 부서지면 사야하고 그런게.. 그냥 무료봉사는 못혀.. 나는 옳게 말하고 잡어.. 양심껏..(면접자 9)

반면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직업활동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주로, 고위전문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직업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상류 직업계층에 속했을수록 노후에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 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심층면접을 분석해 보면 그보다 심층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젊은 시기에 일을 '할만큼' 했으므로 더 이상 직업활동과 그것이 주는 성취 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며 젊은세대의

뭣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욕심을 부리고 남한테 지탄을 받을까 싶어서 절대 그런 욕심은 안냅니다. 왜냐... 저 사람은 너무나 이때까지 공직 생활을 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내야지.. 뭐가 욕심이 많아 갖고 다른데 가서 또 뭐를 할려고 이렇게 노력 하나..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그렇게 거기다가 집착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공직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이 퇴직을 했으면 그걸로 해서 끝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활동을 안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남한테 지질부진하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만큼 했으니 만족하게 살고 연금 나오면 연금 그놈 받아 갖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욕심을 내면 안돼요(면접자 14).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또다른 유형은 스스로 직업활동을 원하지만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장벽들(예컨대, 사기, 실망), 또 직업활동시 경험한 주변 사람들(특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고, 이로부터 직업활동을 포기하고 냉소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는 스스로 직업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다고 볼 수 있구, 그러니까 의욕이 있어가지고 한번 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하고서 갔던 건데...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는 그게 아니더라...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나이가 되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을 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일절...노인네들이 이런데(공원 벤치)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쪽지 같은걸 한 장씩 주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 지금 이야기 한거나 마찬가지로 무슨 희망사항이 있거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회사로 찾아와라. 연락처가 다 있고 해서 한번 거기다 연락해보면 다단계 판매나 아니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쓸데없는 물품.. 이런거 가지고 나가서 거리 가서 팔아서 이윤 좀 먹는 거... 나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이상스러운 그런 저 회사 비슷한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일절 그런데도 안가고, 뭐 갈 필요도 없구...(면접자 1).

정수기 회사에서는 65세까지 쓴다는 거지. 정수기 파는 데 연령제한이 있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5세 넘은 사람들도 1년이 지나서 다시 신청서를 써내면 계속 일할 수 있는데, 회사 내에서는 신청서를 써 내도 사실은 받지 않는다 이거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뒀다는 그 뜻이고.. 그 사람들도 그냥 인간적인 요소로 봐서는 얼굴 맞대놓고 딱 새해부턴 '관두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고 어려워서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신청서를 나눠줄 때 신청서 안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그런 표현들이지. 그러니까 것도 사회적인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거기 또 총책임자로 있다면은 나도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 아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에게 일 시키기가 편해요.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저기 가서 뭘 좀 해주세요.' 하고 시키기가 시키는 사람 자체도 아주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쓰게 되고 그러는 거지.(면접자 3).

한편, 심층면접 과정에서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정부제도의 한계도 포착되었는데, 일부 구직의사가 있었던 심층면접자의 경우, 구직활동 과정에서 국가의 노인일자리 제도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제도의 일회성으로 인해 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했다.

동사무소 자활 일도 했어. 이렇게 돌아댁기면서 화장지 줌는거.. 3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10월 달에 그것이 모가지가 나갔지. 탄 사람이 해야한게..돌아가면서 없는 사람이 해야 한게.. 해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면접자 9).

(정부에 바라는 일은) 노인 일자리를 좀 체계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분배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정부에선 하나밖에 딱 안준단 말이여.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하나밖에 안줘요.

일자리 하나.. 두 개는 겹쳐서 못해. 그것도 컴퓨터에 딱 떠버리니까... 급료로 나가지. 그래서 20만 원짜리 활동하고 있구나, 일자리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못해. 그 일자리도 20만원만 줄 것이 아니고 좀 높여서.. 그래도 좀 일하고 보람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정부에서 뒷받침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면접자 6).

4. 경로당중심형

가. 양적 분석 결과

경로당중심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네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령 변수는 경로당중심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나머지 세 유형의 사회참여보다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연령과 더불어 중요한 변수로 분석된 것은 교육수준인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세 가지 유형의 사회참여 및 비참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보다 남성일 경우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보다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배우자가 없을수록 직업중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 여부는 비참여형과 경로당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서, 노후준비가 있을수록 비참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 역시 네 유형과 경로당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나머지 세 유형의 사회참여 및 비참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4〉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분석(경로당중심형 기준)

vs 경로당중심형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비참여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42**	0.014	0.958	-0.039**	0.011	0.962	-0.148**	0.015	0.863	0.002	0.012	1.002
성(준거:여성)남성	-0.528**	0.181	0.590	-1.223**	0.165	0.294	0.250	0.162	1.284	-0.153	0.182	0.858
교육년수	0.168**	0.021	1.183	0.072**	0.018	1.074	0.072**	0.019	1.074	0.056**	0.020	1.057
혼인상태(준거:무)유	0.203	0.174	1.225	0.035	0.140	1.035	0.470**	0.163	1.600	-0.022	0.167	0.978
노후준비(준거:무)유	0.290	0.164	1.337	-0.014	0.151	0.986	-0.049	0.149	0.952	-0.759**	0.203	0.468
지역(준거:읍면부)동부	0.884**	0.153	2.420	1.268**	0.126	3.555	0.893**	0.136	2.442	1.088**	0.144	2.970
자녀동거(준거:동거)비동거	0.013	0.157	1.013	0.122	0.135	1.130	0.117	0.143	1.124	0.040	0.158	1.041
건강상태(IADL)	0.063	0.048	1.065	0.109**	0.034	1.115	-0.019	0.058	0.981	0.237**	0.032	1.267
용돈	0.011*	0.006	1.011	-0.002	0.006	0.998	0.015**	0.005	1.015	0.012*	0.005	1.012
가구소득	-0.001	0.001	0.999	-0.001	0.001	0.999	0.000	0.001	1.000	-0.004**	0.001	0.996
직종(준거:생산)전문직이상	1.250**	0.271	3.489	1.690**	0.265	5.419	1.160**	0.258	3.189	0.928**	0.299	2.530
사무·서비스직	1.224**	0.194	3.402	0.975**	0.171	2.652	0.882**	0.191	2.415	0.476*	0.210	1.610
상수	-0.286	1.088		0.383	0.874		8.309**	1.192		-4.205**	0.944	

$$x^2 = 1182.595, df = 48, N = 2,752$$

주: * p<0.05, ** p<0.01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보다 종교중심형 및 비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노인개인의 용돈이 적을수록 직업중심형, 자원봉사중심형 및 비참여형보다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전 종사직종 역시 모든 유형과 경로당중심형을 구분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종사직종이 고위전문직 및 사무·서비스직인 경우 보다 생산직 종사자일수록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및 비참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승산비를 이용해 승산효과를 해석해 보면 독립변수 가운데 지역, 이전 종사 직종이 경로당중심형에 비해 타 유형에 속하게 될 승산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역변수의 경우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승산이 2.42배 증가하며 종교중심형에 속할 승산은 3.555배,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은 2.442배, 그리고 비참여형에 속할 승산은 2.97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참여인 반면 나머지 유형의 사회참여 및 비사회참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전 종사직종(직업계층)의 경우, 생산직에 비해 전문직이상에 종사했을수록 경로당중심형에 비해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승산이 3.489배 증가하며, 종교중심형에 속할 승산은 5.419배, 직업중심형에 속할 승산은 3.189배, 그리고 비참여형에 속할 승산은 2.53배 증가한다. 이것은 이전 종사직종이 생산직일수록 경로당중심형의 사회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상의 고위직종 종사자일수록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참여 유형 및 비 사회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인 경우에도 전문직 이상의 고위직 종사자와 유사하게 타 사회참여 유형 및 비참여형에 속할 승산을 큰 폭으로 높이지만 그 정도는 자원봉사중심형을 제외하면 고위전문직 이

상에 비해 약하다. 즉,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일수록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승산이 3.402배,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2.652배,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2.415배, 그리고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1.6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심층면접 결과 해석

앞서 기술통계분석 결과와 로짓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경로당중심형은 네 가지 사회참여 유형 중 가장 많은 수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보편화된 사회참여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이처럼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일하는 노인들은 경로당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돈을 안들이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종교활동은 안해.. 왜 안하냐면.. 절에도 갈려면 돈을 많이 갖고 가야하고, 교회도 갈려면 돈을 많이 갖고 가야하는데... 경로당에서도 와서 다 갈켜. 선생님들이 와서 갈켜. 요가도 갈 노래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다 갈켜. 저쪽 경로당에 가서 있을 때 배워가지고 와서 대회도 나갔다 왔어. 돈 안들이. 그냥 무료로 와서 다해줘. 경로당 같은 데는 어떻게 먹을 것이 많이 들오는가... 생일이라고 들고, 동사무소도 들고, 시에서 다 저런데서 양로당들.. 허다 못해 라면 한 박스라도 다 갖다줘. 할머니들 먹고 살으라고.. (면접자 9).

한편 농촌지역과 같은 시설기반 미비지역의 경우 경로당, 혹은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을 제외한 다른 노인관련 시설의 부재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부분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맺게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심층면접자들은 다른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경로당, 양로당, 마을회관 등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주 혼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에게 경로당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대명사였다.

여기 마을에도 노인회관이 있고 읍에 나가도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 가서 인제 친분붙이기를 해서 친구들 많은데 거기 가서 놀고 그렇게 합니다. (면접자 14)

지금도 노인당이 노인회관이예요. 노인회관이네 어쩐데... 그 우리 마을 회관인데, 그 간판을 제가 인자 창건할 때 법원 가서 그것을 전부다 협조하고 그래 가지고 인가가 나고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 마을에서 편리한이...회관이라 함은 편리한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낙입니다, 저는. 그랑께 겨울이 되면, 불때고 그러면, 거기 모입니다. 그러면 거서 인제 얘기하고 또 관리하고...(면접자 13)

반면, 경로당을 회피하는 경우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경로당 활동의 질적 저하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는 주로 화투를 치거나, 담배연기가 자욱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너무 시끄럽게 수다를 떠는 등 눈살이 찌푸러지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등 '수준'이 안 맞아서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근데 노인정은 안가게 되더라구. 글쎄 뭐 수준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가봤더니 앉아서 뭐 담배나 피우고 첫째 공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뭐뭐 화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 성향에 맞지 않고 그런거지. 노인정은 바로 아파트내에 다 있어요. 있지만 오라고는 해도 안가요, 가지 안해. 노인정은 내 아까도 가봤는데 공기도 탁하고 노는 방법이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내 성격..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면접자 2).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로당에 대한 일종의 '낙인(stigma)'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즉 경로당에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고, 따라서 아무

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더라도 경로당에 갈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은 경로당의 내용적 부실함과 상호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특히 경로당이 작은 지역사회 안에 위치함으로 인해 경로당의 주 이용자들의 신상이 공유됨으로써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노인: (경로당은) 나는 사실 별로....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좀 수준도 안 맞고... 그런데 가서 마실 가서 놀고 어찌고 그런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고.. 또 첫째는 솔직히 말하자면 수준이 안 맞고...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좌우간 상대가 좀 안되는거지요.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가지는 않았어도, 동네 다니는 노인 분들 열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떨지 아는 거지. 물론 앉아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가깝게는 그렇게 해도.. 같이 거가서 함께 놀고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우리는 그래도 좀 학교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하고 상대적인 것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안되지. 대화도 잘 안될뿐더러... 가서 같이 놀고 뭐 어찌고 허면은 그것은 좀 수준이 안 맞으니까 대화가 잘 안되죠. 이렇게 동네에서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뭐 어찌고 그것은 누구와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아니지...

연구자: 그러면 경로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노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라... (면접자 10).

이런 측면에서, 경로당은 노인의 교육수준 및 이전 종사직종 등의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게 된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사무직(화이트칼라) 이상일 수록 사회참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경로당보다는 다른 유형의 활동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5. 비 사회참여형

가. 양적분석 결과

비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사회참여의 네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5>와 같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의 세 가지 사회참여 유형에 비해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 되었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종교중심형 사회참여보다 비사회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비사회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교육년수 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교육년수가 길수록) 비참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혼인상태 변수는 비참여형과 직업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배우자가 있을수록 비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변수는 비참여형과 나머지 네 유형 모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노후준비가 있을수록 비사회참여보다 네 가지 유형의 사회참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노후준비 변수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변수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건강상태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는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나머지 네 유형의 사회참여보다 비사회참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개인의 용돈이 많을수록 종교중심형 혹은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참여형에 비해 직업중심형 혹은 경로당중심

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종사직종의 경우 생산직에 비해 전문직 이상일수록 비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일수록 비참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 및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일 확률이 높았다.

승산비를 해석해 보면, 혼인상태 변수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비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승산을 1.63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변수는 비참여형보다 네 유형의 사회참여 양상을 보일 승산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변수로 보이는데, 노후준비가 있을 수록 비참여형에 비해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승산을 2.855배 증가시키며 종교중심형에 속할 승산을 2.106배, 직업중심형에 속할 승산을 2.034배,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승산을 2.13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 변수는 사회참여 혹은 비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전 종사 직종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는데, 생산직 종사자에 비해 전문직 이상의 종사자일수록 비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을 2.142배 증가시키는 반면 타 유형에 대한 승산은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무·서비스직 종사일수록 비참여형에 비해 자원봉사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은 2.113배 증가하며 종교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승산은 1.6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사회참여 유형과 비참여 유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비참여형 기준)

구 분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44**	0.015	0.957	-0.040**	0.013	0.96	-0.150**	0.016	0.861	-0.002	0.012	0.998
성(준거:여성)남성	-0.375	0.213	0.687	-1.070**	0.198	0.343	0.403*	0.198	1.496	0.153	0.182	1.165
교육년수	0.112**	0.023	1.119	0.016	0.021	1.016	0.016	0.022	1.016	-0.056**	0.020	0.946
혼인상태(준거:무)유	0.225	0.201	1.252	0.057	0.172	1.058	0.492*	0.193	1.636	0.022	0.167	1.022
노후준비(준거:무)유	1.049**	0.218	2.855	0.745**	0.209	2.106	0.710**	0.209	2.034	0.759**	0.203	2.135
지역(준거:동부)읍면부	-0.205	0.183	0.815	0.180	0.161	1.197	-0.196	0.171	0.822	-1.088**	0.144	0.337
자녀동거(준거:안함)동거	0.027	0.183	0.973	0.082	0.164	1.086	0.077	0.173	1.080	-0.040	0.158	0.961
건강상태(IADL)	-0.173**	0.042	0.841	-0.128**	0.026	0.88	-0.256**	0.054	0.774	-0.237**	0.032	0.789
용돈	-0.001	0.003	0.999	-0.013*	0.005	0.987	0.004	0.002	1.004	-0.012*	0.005	0.989
가구소득	0.003	0.002	1.003	0.002	0.001	1.002	0.004**	0.001	1.004	0.004**	0.001	1.004
직종(준거:생산)전문직이상	0.321	0.283	1.379	0.762**	0.273	2.142	0.232	0.272	1.261	-0.928**	0.299	0.395
사무·서비스직	0.748**	0.215	2.113	0.499**	0.192	1.647	0.406	0.213	1.500	-0.476*	0.210	0.621
상수	3.919**	1.167		4.589**	0.978		12.515**	1.292		4.205**	0.944	

$\chi^2 = 1182.595, df = 48, N = 2,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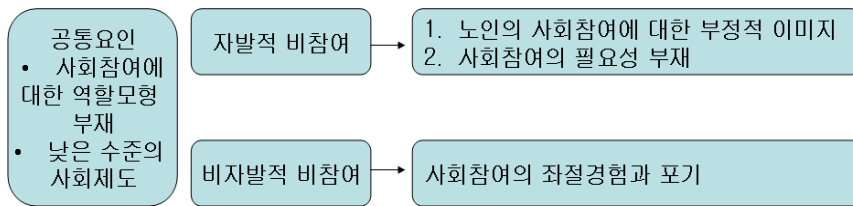
주: * p<0.05, ** p<0.01

나. 심층면접 결과 해석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노인들은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으나 그 이면에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라는 공통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그 의미와 파급효과가 매우 상이한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갈래로 정리되며, 이는 [그림 4-1]에 종합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낮은 수준의 사회적 제도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수준, 즉 이미지의 저하를 초래한다. 현존하는 노인 사회참여를 위해 ‘특화된²⁾ 제도(인프라)란 핵심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경로당은 내용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회관은 기존의 ‘복지 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 및 낙인과 이미지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지 선입견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현재 이들의 운영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그림 4-1] 노인의 소극적 사회참여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도식화



2) 여기서 특화된다는 함은 제도(인프라)의 근본적인 존립 이유 자체가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것이며 기타의 이유(예를 들어 종교적 이념의 보급 등)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족치가 많기 때문에 가기가 그래요... 복지회관 같은데 저 ○○ 복지회관도 몇 번 가봤는데, 식사하는데 줄을 서야 한단 말이야. 난 줄 서는 게 그렇게 처량하고..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물론 밥을 먹으려면 그게 원칙인데 아무튼 처량하고 불쌍하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오 천원이 있으면 한 그릇 사먹고 마는건데..왜 여기서 이렇게 줄 서고 있냐... 속마음으로..그런 생각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가는거야. 거기서 다 가르쳐주고 뭐 인터넷도 있고 이발소도 무료로 하고 그 뭐야 사교춤도 가르키고 없는 게 없어. 거기도 다 있어요. 거기도 인간사는 데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남자도 여자도 다 있는데..그래도 난 그냥 줄서고 밥 얻어먹고 그런 게 싫어요. 내가 내 자신이 처량해. 자존심 관계도 있고... 복지관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왜? 얻어먹는 주제에 뭘 이러쿵저러쿵을 하나 그런거야(면접자 3).

그것도 다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체면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 체면도 있는 것이지... 그거 하고 있으니... 교통정리 한다고 뭐 들고 이렇게... 아이구 나 그런 것은 못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저기 가서 저 교통정리도 하고 요거 들고 그러더라... 이러면 이미지가 안 좋죠. 인제 나이가 70이 넘어 가지고 뭐할라고... 그것도 돈을 안주고 무료 봉사를 한다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럼 돈(교통비)을 오면서 준다고 하더만... 그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있다... (면접자 14).

이렇듯, 현존하는 인프라의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되며 특히 고위전문직 종사자로 대표되는 상류층 노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부재와 이로 인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극적인 사회참여는 궁극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롤모델(role-model)의 부재, 즉 상의 부재로 연결된다. 우선,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의 대다수는 젊은 시절 생활의 고단함으로 인해 노후 활동의 상을 그

려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은 사회참여를 근로활동과 연결시키거나 노인대학 등에서의 배움(교육) 활동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활동은 모두 “젊었을 때 해야 하는”, 즉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수동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노후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했지. 노후생각은 커녕 우선 자식들 잘 키우고 먹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러느냐 그걸 감당하느냐가 큰 문제지... 나중에 일은 전혀 생각도 못했지. 내가 나이가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 여유가 없었어. 그렇게 살다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면접자 10).

무슨 자원봉사 한다 하든가.. 뭐 그렇디다. 그래서 내가 웃어버려요. 인제 돈 벌었으면 한잔하자... 당초에는 저도 퇴직한 한 3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그러나 인제 3년이 지나니까 아하,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뭐할 것인가?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대로 내 인생을 마감 해야지... 이런 생각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구직을...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면접자 14).

그리고 뭐 노인대학이라 함은 뭐 좋은데.. 사람이 모르는 걸 배우는 건 좋거든? 근데 노인대학은.. 나도 내 나이 많은... 학교는...저...배울만큼 배웠으니까 더 이상 뭐 배운다는 것은.. 지금 정신적으로 또 뭐 하드라... 쉬는 것이 지금은 쟈 좋아요. 젊었을 때는 나도 사업을 하면서 봉사에 관한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민족경협협의회 회장도 내가 10년 이상 했구, 환경에 대한 것도 했고 뭐 그 민간단체장도 이렇게... 일반단체장이지... 손을 놓은 건 또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물려주고, 나는 고문으로 좀 있었는데 그거까지 인제는 내가 뭐 안 하는게 좋다 해서 내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면접자 2).

이처럼 사회참여에 대한 상이 부재한 가운데 상류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경우, 즉 금전력과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경륜을 갖춘 경우, 노후에도 여전히 가족내에서 중요한 역할 및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노후에 발생하는 '역할 상실'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사회참여의 상 혹은 노후생활의 상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집 일이라는건 뭐냐면 일단 내가 호주니까 애들들(결혼한)하고 같이 있니까... 집안생활이나 그런 것은 내가 참견할 건 참견해야 하구. 그러니까 할 일이 있죠. 내가 집에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거든요. 집안 가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은 나왔다 갈수는 있어도(사회활동을 위해)... 그렇게 되면 시간을 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아들이 또 지금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좀 신경을 써주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내가 지금 뭐... 뒷바라지라고도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해야 하니까...금전적으로나 하는 사업에 아직 내가 그래도 아직은 멍텅구리는 아니니까... 좀 모르는 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거죠(면접자 2).

즉, 상류층 노인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의 화살표가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를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사무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중간층 노인인데, 이들은 양적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고위직 종사자 및 생산직 종사자의 양극단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다. 그 이유는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의 지위 및 역할 상실을 경험하며, 동시에 생산직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하층에 비해 외부에서 다양한 관계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자원(배움, 자금, 자신감 등)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사회참여의 의지는 있으나 자원의 부족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사

회참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사회제도의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원봉사? 아무나 못해. 어디서 가자고 해야 가. 가자고 저 가서 일전이라도 벌고 적은 거라도 벌고 한 달에 십 만원이라도 번게, 자원봉사도 되지만은... 갑시다 해야 가지 혼자서 못가.. 누가 가자 해야 가지.. 어디 가는지 알가니? 그런 거를 아직 모르게(면접자 9).

내가 ○○복지관을.. 여기 조그만한게 있다 하길래 내가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가서 '이 ○○복지관이 뭐하는 거냐?'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받는 복지관이래요. 그럼 당신 복지관이 아니요... ○○에 있는 사람만 복지관이고, 그럼 공원에 나온 사람들은 말이야 그 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냐?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복지관이 아니죠. ○○에 있는 사람만... 그들도 또증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종로 사람은 신분증을 딱 보여줘야 들어가고 밥도 먹고 활동을 할 수 있지 그냥은 못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복지관이 그럴 수 있어요...(면접자 5).

이처럼 금전 및 정보와 같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혹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힘으로써 발생한 좌절은 생애에 걸쳐 쌓여온 누적된 피로와 결합되며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의사 자체를 포기하는 완전한 '자포자기'로 이어지게 된다.

나는 뭐 자포자기한 사람이라... 기냥 다 밀쳐버리고 그저 거..국가에 뭐 봉사한다 그런 것도 싫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도 싫구, 나 혼자 스스로 편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나이 관계도 있고, 내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서 나를 존중해주고 우러러볼만한 이러한 인물도 못되고 그것도 좀 내가 배워가지고 유식하다든지 아는 게 많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살아온 길이... 고생을 하며 살아나오면서 그저 그냥 자식들 놓고 살고는 겨우 돈 조금 생기니까, 자식들 나가고 고생

만 진창 하다가 늪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낙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래서 이제 술을 배우게 된거고, 술을 먹게 되는거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내는 것이 쥔 편해요. 더..이상 바라봤댔자... 나이관계가 있어놔서... 실천에 옮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받아들이자니 내가 대응할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면접자 3).

제4절 소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선택 양상

아래의 <표 4-56>과 <표 4-57>은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표 4-56>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참여 선택 양상을 보여준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사회참여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참여 유형 가운데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로당중심형 활동을 하게 된다. 직업중심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선택하게 되는 사회참여 유형이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성 노인일수록 직업중심형 사회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종교중심형 사회참여에 가장 소극적이다. 이것은 역으로 종교중심형 사회참여가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여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직업활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의 사회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낮을수록 경로당중심형의 사회참여를 하게 된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했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노후준비가 없을수록 직업중심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후준비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경우 사회참여를 아예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노후준비 여부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종교중심의 사회참여가 지배적이며 직업 및 자원봉사가 그 뒤를 잇는다. 이는 동시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른 유형의 사회참여 혹은 비참여보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이다.

〈표 4-56〉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참여 선택 양상

변수	사회참여 유형간 순위
연령	[높을수록] 비참여 > 경로당 > 종교 > 자원봉사 > 직업
성별	[남성] 직업 > 경로당 > 비참여 > 자원봉사 > 종교
배우자여부	[유배우] 직업
교육수준	[높을수록] 자원봉사 > 종교·직업 > 비참여 > 경로당
노후준비	[했을수록] 자원봉사 > 경로당 > 종교 > 직업 > 비참여
거주지역	[도시] 종교 > 비참여 > 직업 > 자원봉사 > 경로당
노인용돈	[많을수록] 직업 > 적극 > 비참여 > 종교·경로당
종사직종	[고위전문직이상] 종교 > 자원봉사 > 직업 > 비참여 > 경로당 [사무서비스직] 자원봉사 > 종교 > 직업 > 비참여 > 경로당
건강상태	[나쁠수록] 비참여 > 경로당 > 종교·적극·직업
가구소득	[낮을수록] 비참여 > 직업·경로당

노인의 용돈은 직업중심형의 경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으로 직업활동을 통해 노인의 용돈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노인의 사회참여 선택행위를 일견 왜곡시키는 변인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다른 유형의 사회참여 혹은 비참여에 비해 종교중심형과 경로당중심형은 노인개인의 가용자원으로서 용돈이 적은 것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며, 이는 노인의 자원과 사회참여 선택의 상호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종사직종은 고위전문직 이상의 직종에 종사했을수록 종교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자원봉사중심형이 그 뒤를 잇는다. 이러한 점은 고위전문직 이상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이 직업, 비사회참여를 선택하기보다 종교 및 자원봉사 중심의 사회참여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위전문직 이상의 종사자였을수록 상대적으로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의 다양성, 그리고 노후에 대한 사전인식의 충분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노후 사회참여를 계획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였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 사회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종교, 직업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고위전문직 이상과 사무서비스직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직업계층 모두 생산직에 비해 경로당중심형 혹은 비사회참여형에 속할 확률보다 종교, 자원봉사, 직업 등의 사회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고위전문직이상의 경우 종교가 가장 우세한 반면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자원봉사중심형이 가장 우세한 사회참여 유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점은 이전 종사 직종이 생산직종사자였을수록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를 선택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전 종사직종에 따라 결정된 직업적 계층성이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및 자원의 상이함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비사회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참여 유형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경로당중심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변수는 사회참여의 네가지 유형간 관계를 구분하는 변인으로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비참여형과 사회참여형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직업중심형 혹은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을 앞선 분석의 결과와 종합했을 때, 고연령

및 불건강의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변인들을 제외한다면,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과 노후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사회참여 인프라 및 제도에 불만족하는 고위전문직이상의 종사자들이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양극단화된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57> 사회참여 유형별 핵심적 결정요인 비교

사회참여 유형	핵심적 결정요인
자원봉사중심형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높은 교육수준, 노후준비 했음
종교중심형	여성, 도시지역 거주, 적은 용돈
직업중심형	낮은 연령, 유배우자
경로당중심형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 생산직 종사자, 농어촌지역, 적은 용돈
비참여형	높은 연령, 노후준비 없음, 나쁜 건강상태, 낮은 가구소득

다음으로, <표 4-57>은 네 가지 사회참여 유형과 비참여형의 가장 특징적인 결정요인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분 분석 방법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특정 기준범주를 중심으로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어서 해석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범주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인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변수 위주로 정리하였다. 먼저, 자원봉사중심형이 타 유형과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전 종사직종이 사무서비스직 이상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를 했을수록 자원봉사중심형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노후생활과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종교중심형은 여성과 도시지역, 그리고 타 유형에 비해 노인개인의 용돈이 적다는 것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중심형의 가장 차별적인 결정요인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이 유형의 사회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동시에 혼인상태에 있어 유배우자일수록 직업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타 사회참여 유형에 비해 연령이 높다는 점, 교육수준이 낮고 생산직종사자라는 점,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자원봉사중심형에 비해 노인개인의 용돈이 적다는 점 등을 차별적인 결정요인이 된다.

한편, 사회참여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비참여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고연령과 불건강의 생물학적 변인 이외에도, 노후준비가 없었다는 점,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분석 결과의 함의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개별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상이하며, 이러한 이질성은 생애경로에 걸쳐 누적된 경험 및 자원,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가령 청장년기의 직업계층, 교육 수준, 성별, 거주 지역 등의 요인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생애경로에 따라 누적된 네트워크 및 자원의 차이, 인구학적 조건의 차이, 사회제도의 현황 등이 맞물리며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시에 향후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관련된 네트워크는 상호연결적인 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더욱 풍부하게, 그리고 더욱 '사회적'으로 변모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심층면접 분석이 보여주듯이, 사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교모임에서 비롯된 사회참여는 이후 또다른 형태의 사회참여로 연결되며 이는 보다 사회적인 형태의 참여, 예컨대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사회와 단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참여의 형태는 더욱 풍부해지며 (사교모임, 여가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노인권익단체 활동 등) 또한 더욱 '사회' '참여'적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노인 개인의 자율적인 취향과 선택에 의해서 결

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참여의 여러 형태 간에는 위계적 속성이 존재할 가능성을(사적→공적) 시사하는 동시에 사회참여 '경험'의 중요성을 함축하기도 한다.

셋째,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 중 다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먼저, 사회참여에 대한 역할모형(role model), 또는 상이 부재 함에서 기인하며, 둘째, 현존하는 사회참여와 관련된 인프라가 기존의 '복지' 인프라와 접목됨으로써 노인 사회참여의 주 대상이 잔여적 복지의 수혜자와 교차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가 주는 함의를 종합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현존 사회참여 인프라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2절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현황 및 진단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은 법적 기반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로 나뉘어진다. 법적 기반 검토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여러 법을 중심으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 현황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운영현황 및 실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프라의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진단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방안의 토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1. 노인 사회참여 관련 법적 기반 검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며 노인과 관련된 법·제도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장 2절의 고령사회정책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인의 고용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와 관련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법에서는 사회참여의 한 유형인 노인 고용을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본 법 제 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여가문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조성의 의무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15조에서는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기하였다. 즉,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노인고용을 비롯한 여가문화, 자원봉사, 교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회제공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의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마지 플랜에서는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위해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노인권의 증진 및 효문화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계획은 2006년 18만명에서 2010년 3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일자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과 사업수행기관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 인프라 확충은 시·군·구에 일자리사업관리, 일자리 개발, 수행기관간 연계·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배치 추진과 시니어클럽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형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은 시니어클럽을 확대, 농촌지역은 기존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가문화 분야에서는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 문화예술활동의 소비자에서 생비자(Prosumer)로서의 노인역할 제고,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마지 플랜에서는 노후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문화, 평생교육의 영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제공 및 기반제공의 사회적 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복지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는 기본이념으로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의 보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

지법을 근거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에서도 노인일자
리사업, 노인자원봉사, 노인여가문화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서는 전 국민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의 교육을 특화한 법은 아니지만 본 법에 근거
하여 초·중·고 및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노인의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 노인 사회참여 근거법은 사회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에 대
한 사회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고령사회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은 있으나 실제
적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중에서도
노인 고용 또는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 방식에 치우쳐져 있음이 발견되어
진다.

2. 노인 사회참여 시설 인프라 현황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노인이
생활하는 생활권 내에 노인이 희망하는 사회참여의 활동을 할 때 물리적·
심리적 접근이 손쉽다. 현재 노인 사회참여 시설인프라는 노인이 생활권
내에서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이 가능하게끔 충분한가? 또한 시설과의
거리, 활동시 필요한 비용, 이용과정의 번거러움 등 심리적 접근의 어려움
은 없는가? 즉, 현 사회참여 인프라는 노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노인이 편
리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양은 충분한지 등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의 설치 근거를 갖고 있
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경로당,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교실과 사회

복지관,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며, 그 외에도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기관들, 평생교육기관, 여가문화기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표 5-1〉 노인 사회참여 지원 기관 구분

구분	노인만을 대상	전연령대상 (또는 노인특화프로그램)
사회참여 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고령자워크넷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자원봉사센터 문화센터
사회참여+기타 사업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참여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참여 사업만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 사회참여 외에 타 사회복지사업, 종교포교 등의 다른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기관별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상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다.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회교육사업은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육, 건강교육, 외국어교육, 예능교육, 취미교육 등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건강보장, 자아성취 등의 종합적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프로그램은 노인 일자리 교육·훈련 및 인력파견,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표 5-2〉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2006. 12. 31. 기준)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6년말 주민등록인구)	시설수	미설치지자체	
			미설치(전체)	비율
전 국	4,556,733	183	97(237)	41.5
서 울	780,900	26	0(25)	0.0
부 산	322,019	10	9(16)	56.3
대 구	206,158	7	3(8)	37.5
인 천	189,940	10	1(10)	10.0
광 주	105,802	6	0(5)	0.0
대 전	105,716	6	1(5)	20.0
울 산	61,419	5	0(5)	0.0
경 기	807,582	35	10(31)	32.3
강 원	192,012	3	15(18)	83.3
충 북	175,914	7	7(12)	58.3
충 남	271,346	10	11(16)	68.8
전 북	252,029	11	6(14)	42.9
전 남	316,926	16	9(22)	40.9
경 북	372,354	8	18(23)	78.3
경 남	337,931	18	7(20)	35.0
제 주	58,685	5	0(4)	0.0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와 사업을 실시하므로 지역사회 내에 노인 사회참여의 핵심적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2006년말 현재 전국 183개소가 운영중이며,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는 97개 지역으로 전국 41.5%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경북, 충남지역은 노인복지관 미설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충북, 부산 또한 노인복지관의 미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설인프라로 대표적인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 미설치율이 40%를 넘고 있어 지역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평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회참여 관련 사업은 복지관 내에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한 여가적 특성이 강한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구가 많지 않으며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사회복지관은 지역 특성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실시하며, 특히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관이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39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2006년 12월말 현재), 노인복지관에 비해 전국 시설수가 많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79개 지역으로 전국 234개 지자체 중 32.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율에서 지역간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사회복지관의 지역내 설치수를 살펴보면 없는 지자체가 79인 곳에 비해 1개 지자체내에 10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 지역이 있으며 2개~3개인 곳이 56개소, 4개~8개인 지역이 3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5-3〉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2006. 12. 31. 기준)

시·도	유형별 시설수				사회복지관 미설치지자체
	계	가형	나형	다형	
합 계	397	154	202	41	79
서울	95	40	49	6	—
부산	49	25	20	4	—
대구	25	15	10	0	—
인천	17	4	12	1	2
광주	19	4	14	1	—
대전	18	4	11	3	—
울산	49	23	17	9	—
경기	14	6	8	0	13
강원	10	2	6	2	8
충북	15	4	8	3	8
충남	17	5	7	5	9
전북	16	3	11	2	7
전남	15	3	10	2	14
경북	22	11	8	3	12
경남	7	4	3	0	5
제주	9	1	8	0	1

자료: 200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지역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232개 지자체 중 56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과 충남지역의 50%가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중 어느 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강원, 경북, 전북과 전남 지역의 경우 또한 이러한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경우 1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 시설 인프라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이 파악되어진다.

〈표 5-4〉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2006. 12. 31. 기준)

시·도	1개소	2개	3-4개소	5개소이상	미설치	계
합 계	20.1(47)	19.2(45)	18.8(44)	17.9(42)	23.9(56)	234(100.0)
서울	-	4.0(1)	52.0(13)	44.0(11)	-	25(100.0)
부산	12.5(2)	31.3(5)	31.3(5)	25.0(4)	-	16(100.0)
대구	12.5(1)	37.5(3)	-	50.0(4)	-	8(100.0)
인천	10.0(1)	30.0(3)	40.0(4)	10.0(1)	10.0(1)	10(100.0)
광주	-	20.0(1)	20.0(1)	60.0(3)	-	5(100.0)
대전	-	20.0(1)	20.0(1)	60.0(3)	-	5(100.0)
울산	-	80.0(4)	20.0(1)	-	-	5(100.0)
경기	19.4(6)	22.6(7)	12.9(4)	22.6(7)	22.6(7)	31(100.0)
강원	38.9(7)	5.6(1)	11.1(2)	-	44.4(8)	18(100.0)
충북	16.7(2)	16.7(2)	8.3(1)	8.3(1)	50.0(6)	12(100.0)
충남	12.5(2)	18.8(3)	12.5(2)	6.3(1)	50.0(8)	16(100.0)
전북	14.3(2)	14.3(2)	14.3(2)	14.3(2)	35.7(5)	14(100.0)
전남	13.6(2)	9.1(2)	13.6(3)	9.1(2)	36.4(8)	22(100.0)
경북	8.7(2)	8.7(2)	8.7(2)	-	43.5(10)	23(100.0)
경남	15.0(3)	30.0(6)	15.0(3)	10.0(2)	15.0(3)	20(100.0)
제주	-	50.0(2)	-	25.0(1)	-	4(100.0)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한 기관에서 다양한 노인이 사회참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다음 살펴볼 기관들은 노인취업, 자원봉사, 여가문화 등의 특정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다.

노인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enter, CSC)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동부의 고령자워크넷, 고령자인재은행,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노인 관련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은 전국 43개 센터가 운영중이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취업과 창업, 교육 등의 활동을 한다. 전국적으로 센터의 수가 많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라는 특성상 시·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 또한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대한노인회에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 취업상담, 사후관리, 노인공동작업장설치 및 운영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적극적 취업보다는 봉사의 특성을 갖는 활동이 주가 된다. 고령자인재은행과 고령자 워크넷은 노동부에 의해 운영되며 고령자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서울시에 한해서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의 대표적인 사회참여 활동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기관들의 업무는 매우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기관운영의 효과성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노인여가복지 기관은 경로당과 노인교육기관인 노인교실 등이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전국적으로 55,50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개 지자체 평균 229개소가 있다. 충남과 충북,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의 경우 1개 지자체의 경로당이 약 30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로당은 타 기반시설과는 달리 담당직원이 없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지역노인들의 자체적 활동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노인들의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정부는 경로당을 노인들의 여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경로당이 여가문화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5-5〉 경로당과 노인교실 1개 지자체 평균 설치 현황

(2006. 12. 31. 기준)

시·도	경로당	노인교실
합 계	229	4
서울	112	8
부산	118	10
대구	148	5
인천	121	2
광주	203	2
대전	135	3
울산	132	4
경기	240	4
강원	133	2
충북	302	1
충남	322	3
전북	390	5
전남	333	3
경북	280	3
경남	299	3
제주	85	7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대표적인 노인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노인교실이 있다. 노인교실은 2006년 현재 1,099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1개 지자체에 평균 4개의 노인교실이 운영 중에 있다. 노인교실은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없으며 지원도 없는 상태이다.

그 외에도 지역에서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관으로는 자원봉사 지원기관으로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며, 여가문화 또는 사회교육 기능의 기관으로서, 여성회관, 시민회관, 초등학교, 동사무소 등이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16개 시도의 자원봉사센터,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제주도 행정시의 2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노인 자원 봉사 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자원봉사센터별로 노인을 특화하여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센터가 248개소 중 29개소(2006년 기준)로 나타났다. 비록 노인을 특화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노인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으로서 인정되어질 수 있다.

29개 센터의 대표적인 노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두 분류로 나뉘어진다.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록 봉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형태와 적극적 자원봉사 이전 단계로서 자원봉사를 비롯한 노후설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노인 자원봉사단의 예를 들면, S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홀로 어르신 사랑나눔 봉사단”을 구성, 독거노인 4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시설봉사활동, 지역환경정화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월1회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의 공공영역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센터와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운영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민간부분의 인프라로서 종교기관과 민간 문화센터, 대학 등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중 종교활동은 타 사회참여 활동에 비해 높은 활동율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종교를 매개로 하여 종교기관에서는 노인교육과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역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종교기관에서 행해지는 이와같은 노인의 사회참여활

동은 객관적인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종교기관은 천주교(93개소)와 교회(227개소)로 나타난다(정경희, 1999).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노인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종교기관이 많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수치에 대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한 노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대표적으로 S대학교의 제3기 인생대학, K대학교 사회지도자과정, I대학교의 에버그린 아카데미 등 많은 대학에서 평생교육과정으로서 노인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노인교육과정은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교육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은 문화센터이며,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백화점이나 학원형태의 문화센터,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문화센터는 대부분 지역의 주부 또는 아동을 주 교육대상층으로 하며, 노인을 특화하여 문화센터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영역의 인프라는 대부분 노인 교육과 여가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 사회참여 지원 기관 외에도 노인의 사회참여 영역으로는 정치 또는 정책 활동의 참여, NGO 활동 등이 있지만,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형성된 대표적인 단체로서 노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곳은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가 있다.

3. 노인의 사회참여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 진단

노인의 사회참여 특성은 하나의 활동을 통해 다른 활동으로 전이되거나 확대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기관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대학에 참여한다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회참여의 종교활동과 교육, 자원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노인복지관의 여가교육 프로그램 활동으로 시작해서 자원봉사나 취업(일자리)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패턴에서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는 활동 중심이라기 보다는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관내에서도 각 활동에 대한 사업은 각기 별도로 지원되지만 이용하는 노인은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즉, 현재의 노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각종 기관 또는 사업들은 사업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사업, 노인교육사업, 노인취업(일자리)사업으로 각기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하는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노인들은 어떠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가? 노후에 희망하는 사회참여의 모습과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할 것이다. 현재 노인층이 여가와 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세대이므로 노인 사회참여의 형태는 다양하지 못하고 단조로울 수 있으나, 미래 세대의 노인은 개개인이 경험한 다양성만큼 희망하는 노후 사회참여 모습도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노인 사회참여 인프라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회참여 활동이 있을 때 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내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관, 문화센터, 여가교육기관, 자원봉사 지원기

관, 취업알선 기관 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정도는 이상의 목표치에 비추어볼 때 어느 수준인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살펴봤을 때 현 노인층의 사회참여는 경로당중심형, 종교중심형, 취업중심형, 자원봉사중심형으로 그 활동내용이 단순함이 보여진다. 또한 사회참여 인프라 현황에서도 공공기관을 통해서는 노인 취업지원, 여가문화지원, 자원봉사, 소극적 노인교육 활동이 지원되고, 민간에서는 종교시설이 대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프라가 다양하지 못하고 공급하는 양이 적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의 다양성이 낮은 것인지 아님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제한적이고 단순하여 인프라가 발생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전후관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점차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이며 다양화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현 인프라는 다음과 같은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노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한 새로마지 플랜, 노인복지법, 평생교육법과 자원봉사법 등에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 충족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노동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체성의 정도가 매우 낮게 제시되어있다. 이는 전 사회적으로 고령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고령화는 곧 생산성 하락과 동일시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 노인은 경제적인 노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기타 복지적 욕구에 비해 높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참여보다는 소득활동에 욕구가 집중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 내에 노인 노동참여 외의 다양한 참여에 대한 자세한 근거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 인프라의 부족³⁾이다. 노

인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시설과의 접근성은 노인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 복지관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관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41.5%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음으로 인한 노인 사회참여 기회가 없음을 의미한다. 노인복지관 외에도 사회복지관, CSC 등도 시설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인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사회참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고 있는 여가문화, 노인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주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이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일자리사업 중 비중이 높은 공공일자리 영역은 기존 자원봉사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나타난다. 또한 여가문화와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게 구성되어있다. 현재 노인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인 노인교실에서는 교육적 내용보다는 여가문화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여러 사회참여의 활동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또한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기관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는 한계를 갖는다. 노인의 여가문화에서도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 뿐 아니라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부족하고, 평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인 사

3) 시설 인프라의 부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시설수를 파악하는 방법 외에 해당 지역 노인수별 시설수의 비율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시설인프라 수준은 해당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개 밖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소수준의 구비수준이기 때문에 노인인구수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태이다.

회참여를 단순히 노인 개개인이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진다.

넷째, 노인 사회참여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다는 문제점이다.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내 노인 복지정책 또한 해당 지자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의 주요 시설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의 설치운영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현 인프라는 취업과 노동관련 활동, 자원봉사활동은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등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에서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공공인프라만으로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민간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시설인프라 개선 방안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 중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욕구가 발생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 사회참여 시설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참여를 하도록 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시설이 노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으므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잠재한 욕구가 자극될 것이

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인프라는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족하다. 노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시설 인프라의 확충 방안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그 외의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참여 공공시설 인프라의 확충방안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노인 사회참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41.5%인 97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의 설치는 각종 노인복지계획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2007년 현재 미설치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관이 없으나 사회복지관 등의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인구학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시설을 내용적으로 다원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의 기회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노인 사회참여에 관한 공공 인프라의 질적 낙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노인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자원을 결여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이 결여하고 있는 다측면적 자원을 보충하고 이들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공공인프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다. 앞서 설명했듯,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기존의 '복지' 인프라

라에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 복지의 수혜'라는 인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사회참여에 관한 욕구도 다양화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기존의 공공 인프라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다양한 민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민간단체에 의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도입, 노인 사회참여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통한 민간 시설 인프라의 확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특화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상담부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예, '노인 사회활동 정보센터').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정보와 상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와 관련된 노인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에 기반해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함으로써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존 사회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시설 인프라 이외에도 교통 시스템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관련 사회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노후 재교육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생애를 거쳐 누적된 심리적 피로를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노후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노후가 국민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어느 한 주체가 나서서 실시하는 협소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국가, 기업(시장), 민간(제3섹터) 등이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과 몫을 수행해야 하는 거시 사회적 프로젝트로 수립되어야 한다.

3.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방안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동양사회의 전통적 관습이 가지는 속성,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주의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에는 암묵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앞으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노인층이 수동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면 그 자체로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자면 먼저 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식 개선을 수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령통합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권 승·황규선,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2004, pp.69-90.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 김 훈, 「노인의 참여역할과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연구』, 1, pp.126-154, 2006.
- 김 옥, 「경로당 이용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2006, pp.271-293.
- 김경혜,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1), 1998, pp.107-122.
- 김동배·이윤화·안인경,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2004, pp.107-127.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2000, pp.55-89.
- 김미령,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2006, pp.197-222.
- 김미숙·박민정,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000, pp.29~47.
- 김수연, 「노인 종교참여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8, 1988, pp.55-68.

- 김수정,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 사회적 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3, 2006, pp.29-50.
- 김정석,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2003, pp.55-77.
- 김주현·한경혜,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01, pp.209-224.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Ⅱ)」, 『한국노년학』, 19(1), 1999, pp.61-81.
- _____,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998, pp.150-169.
- 나향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2004, pp.53~70.
- 박경란·이영숙,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2007, pp.465-477.
- 박경숙,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2000, pp.621-647.
- 박정은·원영애·최은영,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
- 박주문, 「노인자원봉사조직 참여의 결정요인 - 인천광역시 동구노인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2), 1999, pp.245-261.
- 변재관·정경희·오영희·이윤경, 『노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7.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신동면·양기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2003, pp.111-128.
- 양순미·홍성례·홍숙자,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4(2), 2004, pp.145-178.
-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
- 오영희·정경희·변재관·이윤경,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오영희·정경희·이윤경, 『경로당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4.
- 유성호,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2」, 『노인복지연구』, 8, 2000, pp.169-185.
- _____,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1996, pp.51-68.
- 유태균 역, Padgett, D. 저,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2005.
- 윤종주, 「노인의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회』, 14(1), 1994, pp.168-178.
- 이경희, 「노인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 『노년교육학연구』, 10(2), 2004, pp.49-77.
- 이근홍,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한국노인복지학회』, 12, 2001, pp.7-24.

- 이금룡,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5(2), 2002.
- 이영숙, 「노인의 취업성향에 관한 연구 -취업노인과 비취업노인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007, pp.285-298.
- 이은희, 「성남시 노인의 욕구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기관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17, 2003, pp.91-113.
- 이인정,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999, pp.35-50.
- 이현기, 「고령자 재취업과 지역복지정책적 함의」, 『노인복지연구』, 11, 2001, pp.87-118.
-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정경희, 「퇴직자의 제2의 인생설계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심포지엄 자료집, 2007. 11. 29.
- _____,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2002, pp.29-40.
- 조남훈·김태현·이삼식·오영희·김용현·김정석·구성열·선우덕·은기수·장혜경·정경희·김승권·강혜규·이숙진·김경래·유혜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조추용,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2003, pp.7-34.

- 한경혜,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2004, pp.87-106.
- 한정란, 「한국 노인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실버플랜』, 4, 한국노인복지관 협의회, 2006.
- 허정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종교기관의 노인교육활동 참여」, 『한국노년학』, 21(2), 2001, pp.37-52..
- 허준수, 「도시지역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2006, pp.291-318.
- 홍세희,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황진수·최성재·김태현·이가옥·유성호·변재관,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2001, pp.93-118.
- Age Concern, "Leisure and Education", *Age Concern factsheet #30*, 2007, retrieved December 3rd, 2007, from <http://www.ageconcern.org.uk/AgeConcern/factsheets.asp>.
- Binstock, R. H. & George, L. K.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sixth edition)*, Academic Press, 2006.
-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1999, pp.227-244.
- Dowd, J. J., "Exchange Rates and Old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5(4), 1980, pp.596-602.
- Estes, L. Carroll, Simon Biggs & Chris Phillipson,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Open University Press, 2003.

- Gierveld, J., & Hagestad, G., "Perspectives on the Integration of Older Men and Women", *Research on Aging*, 28(6), 2006, pp.627-637.
- Hagestad, G., & B. Neugarten, "Age and life course,"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1985.
- Hall & Wellma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ohen &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YL, 1985.
- Holstein, M. B. & M. Minkler,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3(6), 2003, pp.787-796.
- Hooyman, N. & J. Gonyea (Eds.),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Care*, Sage, 1995.
- Kaplan, Max,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quiry*, NY: Wiley, 1960.
- Kim, Jibum, Jeong-han Kang, Min-Ah Lee & Yongmo Lee,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Kore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1), 2007, pp.69-73.
- Lennartsson, C. & Silverstein, M., "Does Engagement With Life Enhance Survival of Elderly People in Sweden? The Role of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56(6), 2001, pp.S335-S342.
- Li Y., and K. F. Ferraro, ,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 2005, pp.68-84.

- Neugarten, Bernice L.,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Rowe, John Wallis & Robert L. Khan, *Successful Aging*, Random house, 1998.
- Seccombe, K. & M. Ishii-Kumtz, "Perceptions of problems associated with aging: Comparisons among four older age cohorts," *Gerontologist*, 31(4), 1991, pp.527-533.
- Shaw, B., Krause, N., Liagn, J. & Bennet, J., "Tracking Changes in Social Relations Throughout Late Life", *Journal of Gerontology*, 62B(2), 2007, pp.S90-S99.
- Silverstein, M.&Parker, M., "Leisur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Sweden", *Research on Aging*, 24(5), 2002, pp.528-547.
- Tinsley, H., Teaff, J., Colbs, S. & Kauffman, N., "A System of Classifying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articipation Reported by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40(2),1985, pp.172-178.
- Wise, David A., "Retirement Against the Demographic Trend: More Older People Living Longer, Working Less, and Saving Less," *Demography* 34(1), 1997, pp.83-95.

【부록】 영국의 노인 사회참여 사례

여기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은 평생교육과 노인복지에 대한 역사가 깊고 각 단체의 활동 역시 매우 활발하다. 그 중 Age Concern은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돕는 대표적인 노인단체 중 하나이다.

Age Concern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란 속에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기관과 자원봉사 단체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로 시작되었다. 이미 6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노인이 겪을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간략한 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Age Concern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중 '여가와 교육(Leisure and Education)' 분야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Age Concern, 2007). 그 내용은 평생교육, 연구활동, 야외활동, 문화예술, 스포츠,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노인이 고려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이나 단체들을 연락처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화, 팩스를 제외한 웹사이트 주소만을 제시한다. 영국 정부 및 민간의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의 유익한 프로그램이 국내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대부분 비공식적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해 좀 더 구조화된 교육을 원하기도 한다. 텔레비전의 언어교육이나 경영학 과정을 찾거나, 대학과정에 등록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간단해질 수 있다.

가. 비공식 교육

지상파 방송(BBC1, BBC2, ITV, Channel 4, Channel 5)은 주로 낮이나 밤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The Open University⁴⁾는 디지털을 포함한 BBC채널에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 관련 사이트: www.open2.net, www.bbc.co.uk/education,
www.channel4learning.net

University of the Third Age는 영국 내에 500개 이상의 단체와 150,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갖고 있다. 교육은 비공식적 환경, 종종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목들은 언어, 음악, IT를 포함하고 있다. 각자의 지역에 있는 지역단체에서 시작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www.u3a.org.uk

나. 과정선택

Learndirect

– 좀 더 공식적인 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Learndirect가 시작하기 좋

4) The Open University: 우리의 방송통신대학 같은 개방대학.

은 곳이 될 것이다. Learndirect는 전 지역의 교육에 대해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거주지의 Learndirect 자체교육과 다른 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정보가 제공된다. 또, 강사 제공의 온라인 교육을 위해 인터넷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집에서 Learndirect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다. IT, 경영, 기초교육, 언어를 포함하여 550개 이상의 Learndirect 과정이 있다. 온라인 교육의 이점은 각자 능력에 맞는 속도로, 개인에게 편리한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련 사이트: www.lerandirect.co.uk

□ 기초교육 과정(Basic skills courses)

- 독서, 작문 또는 수학 실력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이용 가능한 다양한 과정이 있다. 이상은 기초교육 과정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의 성인대학이나 지역대학에 바로 연락하거나, 지역의 과정에 대한 정보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을 찾기 위해 Learndirect에 연락하면 된다. 지역 교육과정은 대학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개방교육(Open learning)

- 개방교육은 정해진 참석시간 보다 사용자의 속도와 편의에 따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자주 개방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출석과 상관없는 많은 과정들이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실제로 방송통신 교육이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방대학을 이용하기 위한 내용은 아래 교육과정 제공자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다. 교육과정 제공자(Course Providers)

- 사용자는 문화예술과정, 언어, 컴퓨터 기술과 같은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성인대학이나 지역대학에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무료이다.
- City & Guilds
 - 영국 전역에서 이틀부터 일주일까지 지속되는 출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간교육과 해외 교육기회를 실시한다. 이용 가능한 과정들은 예컨대 천문학, 박물학, 미술사, 수채화, 타이치, 창작글쓰기, 와인제작 등 매우 다양한 과목들을 포함한다. 교육들은 보통 역사적인 전통가옥 같은 매력적인 장소에서 실시된다.
 - www.timetolearn.org.uk
- Hillcroft College
 - 교육적, 또는 사회적으로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이 요구되는 대학이다.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준의 과정이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된다. 독해 및 계산능력, 자신감 설계, 창작글쓰기, 간호교육, 영어교육 같은 기초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대학에서는 50세 이상 여성을 위해 독서,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회, 또는 특정 관심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 기초교육 과정은 무료이다. 영국 내 기관에서 고등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과 특정 사회보장기금 해당자는 기타 교육과정에 대해 15파운드를 지불하며, 편의시설과 식사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 관련 사이트: www.hillcroft.ac.uk

□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EA)

- 영국 전역에서 10,000여개 이상의 야간수업과 출석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 18,000여 회원을 갖고 있는 전국 자원봉사운동 단체이다. 회비는 무료이다.
- 관련 사이트: www.wea.org.uk

□ 아래의 조직들도 개방교육과 통신교육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Association of British Correspondence Collages(ABCC)
 - 대학 및 교육과정 목록 제공
 - 관련 사이트: www.homestudy.org.uk
- National Extension College (NEC)
 - 100개 이상의 재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구
 - 관련 사이트: www.nec.ac.uk
- Open and Distance Learning Quality Council(ODLQC)
 - 방송통신 교육에 대한 인정체계를 수행하는 독립기구
 - 인가받은 교육과정과 제공자들의 정보를 제공
 - 관련 사이트: www.odlqc.org.uk
- Open College of the Arts
 - 원예, 창작, 사진을 포함하는 재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자선단체
 - 사용자의 속도를 고려하여 교육 자료와 전문수업료 제공.
 - 관련 사이트: www.homestudy.org.uk
- Open University
 - 학부과정 교육에 어떤 입학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1/3이 일반대학 입학자격 이하
- 텔레비전 , 출석강의, 개인지도 프로그램
- 관련 사이트: www.open.ac.uk

다. 고등교육

- 고용평등 규정(Employment Equality Regulations 2006)에 따라, 대학들은 연령을 이유로 학생 또는 잠재적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연령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공식적인 대학 입학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많은 학위과정들이 실제 학위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추가 학습과정인 '예비과정(Foundation Year)'을 고려할 수 있다.
- 진학특별과정(access course)은 학위과정 진학을 위한 또 다른 유형의 교육과정이다. 진학특별과정은 학위과정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준비하고, 연구방법과 작문 등 학위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포괄하는 과목들이 있다.
- 예비 및 진학 과정들은 학위과정에 바로 들어갈 공식 자격이 없거나, 장기간 공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 학자금

- The Educational Grants Advisory Service
 - 자선단체나 조합의 자금, 정부 장학금, 대출 등 학자금에 관한 정보와 조언,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정보 제공한다.

- 지역의 일부 과정들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할인을 제공하지만,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일부 지방 관헌은 연령차별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특혜를 철회하고 있다. 이것이 적절한지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방당국이 이 특혜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예컨대 노인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은 법의 의도를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아직 이러한 재판은 없었다. 60세 이상을 위한 특혜가 없어진 곳에서,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그것을 원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 GCSE⁵⁾의 레벨2 자격을 공부하는 중이거나, 이 과정 이상의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Adult Learning Grant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 개인의 수입에 따라 일주일에 30파운드까지 가능하다. 해당 대학이나 Learndirect에 연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A레벨이나 관련연구를 위해서 Adult Learning Grant는 30세의 연령상한제를 두고 있다.
- 학자금 대출은 고등교육 비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등록금과 생활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학위과정을 끝내거나 15,000파운드를 벌기 전까지 갚을 필요가 없다. 등록금 대출은 연령제한이 없지만, 생활비 대출을 위해서는 학위과정을 60세 이전에 시작해야만 한다. 학위과정을 끝내자마자 유급노동을 하도록 하는 요구조향이 없다.
- 일부 과정, 특히 교육, 간호, 산파술(産婆術) 등 전문 직업교육 과정의 경우 장학금, 상금, 실습급여가 이용가능하다.

5) GCSE(Th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는 영국 자격증제도의 이름이다.

- 일하고 있는 중이거나 조합원이라면, 조합에 교육이나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선택사항들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조합교육대표(Union Learning Representative)를 찾는다. 작업장, 지방 대학, 훈련센터에서 훈련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직업과 상관이 없다.
- 교육과정이 직업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이라면, 직업개발대출(Career Development Loan)을 받을 자격이 된다. 교육훈련을 마친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한 달까지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다. 정부가 교육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를 갚아준다.
- 관련 사이트: www.lerarnndirect.co.uk, www.direct.gov.uk

라. 연령차별

- 2006년 10월 1일부터 대학과 교육제공자들이 연령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된다. 연령차별에 관한 새로운 법은 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의 교육과정에 연령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때문에 교육과정에 거부당하거나, 어떤 불편을 겪는다면, 법적 소송을 취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정보는 지역 Age Concern 이나 Citizens Advice Bureau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2. 컴퓨터와 인터넷

인터넷 사용은 방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노인들은 자가 학습이나, 공식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가족과 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시작하는 법

- Age Concerns의 많은 지부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제공한다.
- 가정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없다면, 거주지역의 도서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이 시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이 있다.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노인이라면, UK Online 센터에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 센터,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카페를 포함하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소를 갖고 있다.
 - 대체로 무료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용 부담이 있다. 각 센터는 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다.
 - 관련 사이트: www.ufi.com/ukol
- Age Concern England's ActivAge Unit
 - The ActivAge Unit은 노인들 사이에 컴퓨터 사용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통신기술팀에 연락하면 거주지의 이용 가능한 도움에 대해 알 수 있고, 자체 제작한 'IF I Can You Can'이란 인터넷 초보자를 위한 안내책자가 있다.
 - 그리고 노인들끼리, 또는 초빙된 전문가와 함께, 관심분야를 논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50세 이상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Silver Surfer Week는 2007년 9월 10-14일에 열릴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려는 노인들에게 흥미로운 모임이 있는 전국적인 행사가 열릴 것이다.
- 관련 사이트: www.ageconcern.org.uk

나. 50세 이상을 위한 웹사이트

- 구체적인 명단은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시작되었던 쓸만한 사이트들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사이트는 광고를 통해 사이트를 유지한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www.age-net.co.uk 연예, 정보 사이트
- www.digitalunite.net 컴퓨터 교육을 제공
- www.hellsgeriatrics.co.uk 노인병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www.idf50.co.uk 토론광장
- www.laterlife.com 특별주문, 여행, 채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
- www.pastfify.net 인터넷 정보 및 장점 제공, 유용한 사이트 연결
- www.seniority.co.uk 건강, 취미, 여행, 오락, 게임 등 주제들
- www.silverhair.co.uk 컴퓨터 문제와 인터넷 접근에 관한 조언 제공
- www.silversurfers.net 음식, 건강, 여행, 재정, 취미 등 주제들
- www.wiseowls.co.uk 45세 이상, 경영 및 고용에 관한 조언

3. 연구조사

- 인터넷은 특정 주제, 지역사(地域史), 가계보 등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쉽게 연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인이 혼자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인터넷에 대한 별다른 접근 없이 관련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연구 활동이 처음이라면, 주제와 관련된 책, 잡지, 목록이나 참고문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에 시스템 사용 방법을 지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목록과 기록을 보는 법을 확인한다.
-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빌리기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약간의 비용이 부담된다.

가. 일반연구

- 전문적인 도서관들은 전문 자료를 조사하는데 가치가 있고, 지역의 참고도서관은 지역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는 중앙정부와 의회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록들은 역사적 사본, 의회기록, 군사기록, 그리고 기밀 해제된 공용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11세기부터 현재까지 연속된 기간을 담고 있다. 갖고 있는 일부 자료의 전시나 행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국립문서보관소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전교육이 제공된다. 웹사이트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고, 일부 문서는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www.nationalarchives.gov.uk

-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People's Network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복권기금에 의해 지원된 것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자가학습을 도울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트를 통해 관련 질문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숙련된 직원들이 질문의 답을 위해 도울 것이며, 다양한 온라인 보관소를 통해 관련 자료의 검색을 돕는 검색엔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 사이트를 통해 지역도서관의 세부정보도 찾을 수도 있다.

– 관련 사이트: www.peoplesnetwork.gov.uk

- The 24 Hour museum은 영국 내 3,000개 이상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산에 관한 뉴스, 목록, 기타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로서, 정보, 사진 그리고 특정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다.

나. 가족 계보 연구

-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역사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은퇴 후 이런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가족기록센터(The Family Records Centre)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정부 및 타기관의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

– 또 연구의 시작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제공한다.

– 군사기록, 유언장, 센서스, 그리고 배우자의 정보로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다.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에 관한 기록을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www.familyrecords.gov.uk

- 계보학회(The Society of Genealogists)는 연구의 접근법에 조언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sog.org.uk
- BBC 웹사이트는 가족 계보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bbc.co.uk/history/familyhistory

다. 지역 연구

- 거주지나 다른 지역의 역사와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혼자 연구하거나, 관련 회담이나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많은 도서관들이 지역연구 모임을 갖고 있다.
- 영국향토사협회(The British Association for Local History) 역시 향토 역사 안내서를 발간하거나 비정기적인 답사일정을 갖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balh.co.uk

4. 야외활동

가. 외출

- 흥미로운 많은 지역들이 지역사, 건축, 유명인사, 동식물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안내도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요금을 받고 방문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까운 관광정보안내소나 도서관에 세부사항을 찾을 수 있다. 장·단기 여행을 위해 나라의 색다른 모습을 찾는 데 유용할만한 사이트도 있다.

- 관련 사이트: www.visitbritain.com

나. 문화유산의 날

- 매년 잉글랜드 전역에서 9월 중순 일주일간, 지역 건축물과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산책, 관광, 행사 등이 열린다. 공개되지 않는 많은 장소를 개방하는 행사가 포함된다.

- 관련 사이트: www.heritageopendays.org

다. 산책

- The Ramblers' Association은 전국적으로 500개 지역단체를 회원 조직으로 갖고 있다. 웹사이트는 도심산책 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포함하여 길고 짧은 많은 보도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ramblers.org.uk

- 전국적으로 2,500마일의 국가 산책로(오솔길)가 있다.

- 관련 사이트: www.nationaltrail.co.uk

- 영국의 내륙 수로 체계는 광산과 채석장을 공장, 제재소, 항구와 연결하기 위해 산업혁명 초기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보트나 산책을 위한 레저용으로 개방되었다.

- 관련 사이트: www.waterscape.com

라. 정원관리, 원예

- 단순한 방식이 정원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정원관리사에게 도구의 정리정돈은 중요하다. 동력 제어장치는 전기 도구에 사용되어야 하고, 케이블은 끊어지거나 걸리지 않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일부 도구는 휘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독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일부 식물이나 수액에 의한 염증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가시나 다른 가시에 찔렸을 때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 큰 정원이 잘 관리되더라도, 아직 지표면과 식수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화단을 높이는 것은 제초를 쉽게 하고, 보도 사이에 나무를 깊이 심는 것은 많은 잔디를 줄일 수 있다.
- 화분에 심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화단에 심는 것 보다 물을 주고 기르는 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화초를 샀을 때, 작은 화분은 큰 나무보다 좀 더 싸고 더 빨리 정원에 심을 수 있다.
- 나무를 심을 때 정원의 토양과 같은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토양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하려면 식물화원이나 정원센터에서 값싼 시험 용을 살 수 있다. 그것으로 토양에 잘 자라는 식물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화초를 사기 전 화원에서 항상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식물 박람회에서는 좋아하는 식물에 관해 좀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정원의 보안을 위해 식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자나무와 산사나무처럼 일부 관목은 강도를 막을 수 있는 가시 돋친 울타리를 제공하며, 울타리는 좋은 장애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소를 직접 가꾸고자 한다면, NSALG(the National Society of

Allotment and Leisure Gardeners)가 협회나 지역 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가까운 임대 채소밭을 배정할 것이다. 이것은 일부 비용부담이 있으며, 때때로 대기자명단에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해충이나 질병, 계절별 요령, 유기농법, 식물 채집 등 아마추어 원예사들을 위한 조언을 하고 있다. 또 행사를 진행하고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nsalg.org.uk

- 물리적 이동이 힘들다면, 작은 정원이나 창가의 화초상자를 통해 원예를 즐길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www.thrive.org.uk, www.carrongardening.org.uk

- 왕립원예협회(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는 Chelsea Flower Show부터 작은 워크샵 및 회담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체제로 운영되며, 전국에 많은 정원들을 갖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rhs.org.uk

- 지역대학에 원예학과가 있다면 조언 뿐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원을 관리할 물리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Age Concern 지부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Gardens on show

- NGS(The National Garden Scheme)은 지부를 갖고 있으며, 정해진 날에 개방하는 모든 정원들의 목록을 매년 'Yellow Book'으로 출간하고 있다. 대부분 개인 정원이며, 정원 디자인을 얻거나, 단순히 차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유 등 유용한 것들이 있다.

- 관련 사이트: www.ngs.org.uk

5. 사회적 삶과 새로운 도전

-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기대하고 있지만, 생활방식과 대인관계의 방식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를 잃거나, 사람들과 연락이 끊어졌을 때,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노년기 상황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기관들이 존재한다.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서부터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다가갈 수 있다.
- Contact the Elderly
 -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조직이 있으며, 움직임이 불편한 독신노인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 운전자가 일요일에 독신노인들을 후원자 집으로 모셔와 노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관련 사이트: www.contact-the-elderly.org
- Dark Horse Venture
 - 55세 이상의 주민들이 기부와 나눔, 교육과 실천, 운동과 탐험, 세대 교류 등 네 가지 분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darkhorse.rapid.co.uk
- SPICE(Special Programme of Initiative, Challenge and Excitement)
 - 일상적인 것을 벗어난 어떤 것을 추구하는 18세 이상을 위한 영국의 자유로운 사회조직이다.
 - 공연 단체관람 뿐만 아니라 열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영국의 8개 도시에 지역 조직들이 있다.
 - 관련 사이트: www.spiceuk.com

Better Government for Older People

- 보건, 평생교육, 사회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정책 형성과정과 그 결정에 노인들의 역할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 관련 사이트: www.bgop.org.uk

6. 문화예술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이며, 교회, 시민회관, 공연장 등 많은 장소에서 로비전시회, 점심시간의 음악, 그리고 각종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서점은 사인회와 작가모임을 갖고 있으며, 공원, 강변, 해변에서 무료 야외행사도 있다. 일부 극장은 평일에 보통 오후상영을 위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공연들도 개인 및 단체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가. 참가하기

지역의 아마추어 연극모임, 음악모임, 작가모임, 예술조직들은 언제나 신입회원을 환영하고 있다.

The National Federation of Music Societies

- 합창단과 악단모임을 포함한 전국의 2,000개 이상의 음악모임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makingmusic.org.uk

나. 행사 예약

Shape Ticket Scheme

-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기 어렵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극장, 공연장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 준다. 티켓 정보가 담긴 소식지를 받은 회원이 주문을 하면, 조직은 원하는 좌석 요구사항에 맞게 제공한다. 자원봉사 운전자가 집에서 극장으로, 극장에서 집까지 수행하고, 공연동안 옆에 머무른다.
- 관련 사이트: www.shapearts.org.uk

텔레비전과 라디오 쇼

- 지식을 시험하고 경쟁하기 위한 퀴즈쇼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www.bbc.co.uk/whatson/tickets, www.hattrick.com,
www.talkbackthames.tv

다. 독서/듣기

- 한동안 도서관에 가지 않았었다면, 도서, 굵은 글자의 인쇄물, 오디오북, 참고자료들 등 다양한 자료들에 놀랄 것이다. 또 요즘은 비디오, DVD, CD도 제공된다.

Write to Listening Books

- 오디오북은 도서관과 서점에서 그 다양한 범위로 점점 더 인기가 있다. Listening Books는 책을 잡거나, 넘기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기 힘든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오디오북을 배달하는 도서관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 관련 사이트: www.listenng-books.org.uk

The 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 정상적인 형태로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Talking Books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세트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rnib.org.uk

Talking Newspaper Association of the UK

- 전국과 지방신문을 오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켓, 이메일, 인터넷 다운로드, CD의 형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tnauk.org.uk

7. 스포츠

가. 스포츠 참여하기

노인들은 즐기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원할 수도 있다. 레저센터, 헬스클럽, 지역 운동단체와 협회는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데 예민하다. 지역 전화번호부에서 운동단체나 모임의 목록을 찾을 수 있다.

Ageing Well

- 이것은 Age Concern England의 ActivAge Unit에 의해 수행되는 노인 건강장려 프로그램이다.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이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ageconcern.org.uk

CCPR(The Central Council of Physical Recreation)

- 축구협회의 크기부터 Medau Society까지 크고 작은 스포츠와 레크

레이션 단체를 포괄하는 조직이다. 모형항공기, 용선(龍船)경주, 포크댄스, 성악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ccpr.org.uk

Cycle Campaign Network

- 쉽게 운하를 따라 타거나, 체력적으로 격렬하게 타든지, 어느 쪽이든 세밀한 조언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9개의 지역조직과 사이클광(狂) 조직을 갖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cyclenetwork.org.uk

Extend

-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율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

- 관련 사이트: www.extend.org.uk

Keep Fit Association

- 전국적으로 강습이 있는 정부조직

- 관련 사이트: www.keepfit.org.uk

Sport England

- 잉글랜드의 국가 스포츠 발전기구

- 조직의 Active England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스포츠에 관한 시설 및 조직 정보를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sportengland.org

나. 관람

- 지역신문은 마을광장의 크리켓, 럭비 축구, 보트행사, 그리고 다른 스

포츠 축제에 관해 주별로 경기일정을 신고 있다. 경주로 주변의 환영 인파가 많은 도심의 마라톤경기, 매년 봄 관람이 가능한 보트경기처럼 국가적으로 인기 있는 행사들은 관람이 무료일 때도 있다.

8. 추억, 회상

- 이것은 토론모임, 전시회, 연극준비, 책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면, Age Exchange의 전국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www.age-exchange.org.uk

9. 자원봉사

- Age Concern England's ActivAge Unit

- ActivAge Unit은 Age Concern England의 자원봉사 분야를 맡고 있다. 예컨대 지식, 요리법, 예술작품으로 아이들을 돕는 것처럼, 학교 및 다른 환경에서 노인이 아이들과 함께 기술, 경험, 우정을 교환하기 위한 세대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Ageing Well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ageconcern.org.uk

- Reach

-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숙련된 사람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 조직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적, 기술적, 전문가적 지식을 지닌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 관련 사이트: www.reach-online.org.uk

NAVCA(National Association of Councils for Voluntary and Community Action)

-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봉사 조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역 VSC(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groups)를 갖고 있다.

- 관련 사이트: www.navca.org.uk

Volunteering England

- 여러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2004년 형성된 국가발전기구이다. 봉사자의 보람 있는 활동을 위해 욕구, 관심, 경험과 맞는 봉사단체들을 인근의 자원봉사 소개소를 통해서 연결해 준다. 만약 관련 조직을 만들기 원한다면, 단체의 허가, 실천, 모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volunteeringengland.org.uk

10. 추가정보

CAB(Citizens Advice Bureaux)

- 무료 제공,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정한 조언

- 관련 사이트: www.citizensadvice.org.uk

deafPLUS

- 청각장애인의 평등을 위해 일하는 등록된 전국 자선단체, 심각한 청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부터 외상에 의한 장애, 노년기에 의한 청력 감퇴까지 모든 수준의 청력 장애인을 지원한다.

- 관련 사이트: www.deafplus.org

- Disabled Living Foundation
 - 여가 및 장비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전화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dlf.org.uk
- Help the Aged
 -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전화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인쇄물과 도서를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helptheaged.org.uk
- NAPA(National Association for Providers of Activities for Older People)
 - 요양시설과 데이케어 시설분야 설립자들의 활동정보 제공
 - 관련 사이트: www.napa-activities.co.uk
- NFWI(National Federation of Women's Institutes)
 - 전국적으로 지부를 갖는 가장 큰 전국 여성 조직
 - 관련 사이트: www.nfwi.org.uk
- NIACE(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 주요 목표로 노인 교육자를 삼고 있는 성인교육 체신을 수행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조직
 - 관련 사이트: www.niace.org.uk
-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 중증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정보와 도움을 주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rnib.org.uk

RNID(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af)

- 정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련 사이트: www.rnid.org.uk

연구보고서 20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발행일	2007년 12월 일	값 6,000원
저 자	이 소 정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ISBN 978-89-8187-474-2 93330